

# 조선시대 악기도설(樂器圖說)

## 기록에 대한 비교 고찰

---

오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음악학 전공  
dearjihae@hanmail.net

---

- I. 머리말
  - II. 악기의 종류와 분류
  - III. 악기 해설[說]의 구성 및 내용
  - IV. 악기 그림[圖]의 특징
  - V. 맷음말
-

## I. 머리말

조선시대 악기도설이 수록된 문헌은 『세종실록·오례』(1451)를 비롯해 『국조오례의서례』(1474)·『악학궤범』(1493)·『춘관통고』(1788)·『대한예전』(1898)·『중보문헌비고』(1770-1908) 등이 있다. 『세종실록·오례』가 『국조오례의서례』의 편찬에 기초가 된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각 문헌에 수록된 악기도설의 내용과 관련성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이 글에서는 『세종실록·오례』를 비롯하여 위의 문헌들에 나타난 악기도설의 수록내용과 구성을 비교하여 그 특징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악기도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악학궤범』에 집중되었는데, 성종대 편찬된 『악학궤범』의 악기도설이 다른 문헌에 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송방송은 『악학궤범』의 인용 기사를 원전과 비교하여<sup>1</sup> 문헌의 역사적 신빙성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악학궤범』에 인용된 악기도설의 내용 대부분이 『국조오례의서례』를 전사(全寫)했음을 간과한 결론이었기에, 한층 폭넓은 시각의 사료 비교가 요구된다. 프로바인은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의 편찬을 검토하여 집필에 나타난 문제점과 특징을 고찰했다.<sup>2</sup> 이 연구는 중국문헌과 관계된 아부악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므로 당부·향부악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 밖에 『악학궤범』에 나타난 악기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sup>3</sup> 및 『악학궤범』의 향악기 9종의 형성과정을 살핀

1 송방송, 「『악학궤범』의 문헌적 연구: 인용기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권16호 (1982), 1-65쪽.

2 로버트 프로바인 저, 정영진 역, 「『악학궤범』 권6의 편찬과정 소고」, 『음악과 민족』 권12호(1996), 279-285쪽.

3 정화순, 「조선전기 문헌에서의 국악기 분류법에 대한 검토」, 『온지논고』 15호(2006), 359-400쪽.

연구<sup>4</sup> 등에서도 주요 고찰의 대상은 『악학궤범』이었다. 즉, 지금까지 조선 시대의 악기도설 기록이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다루어진 경향이 있어, 조선 시대 악기도설 문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고는 조선시대 관찬서(官撰書) 『세종실록·오례』, 『국조오례의서례』, 『악학궤범』, 『춘관통고』, 『대한예전』,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각 악기도설(樂器圖說)에 대하여, 악기의 종류와 분류, 해설의 구성 및 내용, 악기 도상의 특징을 비교해 각 문헌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되, 필요한 경우 원전을 대조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악기의 종류와 분류

### 1. 문헌의 성격과 악기의 조목(條目)

조선시대 관찬서(官撰書) 『세종실록·오례』(1451)·『국조오례의·서례』(1474)·『악학궤범』(1493)·『춘관통고』(1788)·『대한예전』(1898)·『증보문헌비고』(1770-1908)는 문헌의 성격에 따라 의례서(儀禮書)와 악서(樂書), 유서류(類書類)로 나뉜다. 『세종실록·오례』·『국조오례의·서례』·『춘관통고』·『대한예전』은 의례서, 『악학궤범』은 악서, 『증보문헌비고』는 유서류이다. 이와 같은 문헌의 성격은 악기의 조목(條目)을 구성하는 내용에 그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의례서(儀禮書)의 악기도설에 나타난 악기의 조목은 악현에 배치되는 악기(樂器)와 의물(儀物), 무구(舞具) 그리고 악기에 관한 제도(制度)에 대한

---

4 정화순, 『악학궤범』 「향부악기도설」의 원전에 대한 추고, 『온지논고』 16호(2007), 335-361쪽.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세종실록·오례』의 「길례서례」와 「가례서례」에 수록된 아악기 및 속악기 총 67조목에는 악기(樂器) 58종<sup>5</sup>과 의물(儀物)인 정(旌)·득(纛)·휘(麾), 무구(舞具)인 우무(羽舞)·간무(干舞), 그리고 악기의 제도(制度)를 설명한 종제(鐘制)·종거(鐘虞)·경제(磬制)·경거(磬虞)의 4조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조오례의서례』의 「길례」와 「가례」에 수록된 아부악기 및 속부악기 총 65조목에도 악기(樂器) 57종<sup>6</sup>과 의물(儀物)인 정(旌)·득(纛)·휘(麾)·우약(羽籥)·간척(干戚)·조축(照燭)의 6종, 악기 제도(制度)를 설명한 종(鐘)·경(磬) 2조목이 포함되어 있다. 『춘관통고』의 악기도설 조목(條目) 구성은 『국조오례의서례』와 동일하다. 『대한예전(大韓禮典)』의 「길례」와 「가례」의 아부악기 및 속부악기 총 56조목 또한 악기 48종과<sup>7</sup> 의물(儀物) 6종,<sup>8</sup>

- 
- 5 「길례서례」에 수록된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의 악현도에 나타난 악기의 종류는 현가에 편종(編鐘)·편경(編磬)·특종(特鐘)·특경(特磬)·축(柷)·어(敔)·관(管)·약(籥)·생(笙)·우(竽)·화(和)·소(簫)·적(箇)·지(篪)·부(缶)·훈(簾)·영고(靈鼓)·노고(路鼓)·뇌고(雷鼓)·토고(土鼓)의 20종과 등가에 가종(歌鐘)·가경(歌磬)·슬(瑟)·금(琴)의 4종, 무(舞)에 응(應)·아(雅)·상(相)·독(牘)·순(簾)·탁(鐸)·요(鑼)·탁(鐸)의 8종으로 총 32종에 해당한다. 상기 33종의 가운데, 특종(特鐘)·특경(特磬)과 가종(歌鐘)·가경(歌磬)은 같은 악기로 취급되어 30종이 된다. 「가례서례」에 수록된 악기의 종류는 조례 현가의 건고(建鼓)·옹고(應鼓)·삭고(朔鼓) 및 회례 등가의 절고(節鼓) 4종과 조례 고취의 화·생·우·방향·당비파·당피리·적·대쟁·아쟁·장고·통소·월금·해금·교방고·박·현금·가야금·향비파·대적·향피리 18종의 속악기이다. 악현도에 나타나지 않는 아악기 영도(靈鼗)·노도(路鼗)·뇌도(雷鼗)·도(鼗), 속악기 교방고(教坊鼓)·박(拍) 총 6종이 포함되었다.
- 6 「길례」에 수록된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의 악현도에 나타난 악기의 종류는 아악기 편종(編鐘)·편경(編磬)·특종(特鐘)·특경(特磬)·뇌고(雷鼓)·뇌도(雷鼗)·영고(靈鼓)·영도(靈鼗)·노고(路鼓)·노도(路鼗)·토고(土鼓)·절고(節鼓)·축(柷)·어(敔)·관(管)·약(籥)·생(笙)·우(竽)·화(和)·소(簫)·적(箇)·지(篪)·부(缶)·훈(簾)·슬(瑟)·금(琴) 35종과 「가례」에 수록된 전정현가와 고취의 악현에 편성된 아악기 건고(建鼓)·삭고(朔鼓)·옹고(應鼓) 3종 및 방향(方響)·교방고(教坊鼓)·장고(杖鼓)·박(拍)·월금(月琴)·해금(奚琴)·당비파(唐琵琶)·대쟁(大爭)·아쟁(牙爭)·당적(唐笛)·통소(洞簫)·당피리(唐鼙篥)·태평소(太平簫)·현금(玄琴)·가야금(伽倻琴)·향비파(鄉琵琶)·대금(大竽, 중금·소금 포함)·향피리(鄉鼙篥) 18종의 속악기이다. 악현도에 나타나지 않는 아악기 도(鼗)가 포함되었다.
- 7 「길례」에 수록된 종묘·경모궁·득제·관왕묘의 악현도에 나타난 아악기 편종(編鐘)·편경(編磬)·특종(特鐘)·특경(特磬)·뇌고(雷鼓)·뇌도(雷鼗)·영고(靈鼓)·영도(靈鼗)·노고(路鼓)·노도(路鼗)·토고(土鼓)·절고(節鼓)·축(柷)·어(敔)·관(管)·약(籥)·생(笙)·우(竽)·화(和)

악기 제도(制度)를 설명한 종(鐘)·경(磬) 2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서(樂書)인 『악학궤범』<sup>9</sup>의 「아부악기도설」과 「당부·향부악기도설」에는 총 64조목이 수록되어 있다. 아부악기 38종<sup>10</sup>, 당부악기 13종<sup>11</sup>, 향부악기 7종<sup>12</sup>과 의물(儀物)인 정(旌)·독(纛)·휘(麾)·우약(羽籥)·간척(干戚)·조축(照燭)의 6종 등이다. 이 조목들은 의례서와 마찬가지로 악현의 개념에 준하여 구성되었으나, 악기와 의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이 다르다. 즉, 악기의 제도를 설명하는 종제(鐘制)·종거(鐘簫)와 같은 조목은 해당 악기의 해설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례 자체보다는 의례를 구성하는 악기와 의물을 이해하는 실용적인 기능이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서류(類書類)인 『증보문현비고』의 「악고(樂考)」에는 총 62종이 수록되었는데, 조목의 구성이 이전에 편찬된 악기도설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의례서(儀禮書)와 악서(樂書)의 악기도설은 각 문현의 편찬시기에 따라 당대의 길례 및 가례 악현도에 편성된 악기와 의물에 준하여 조목이

---

(和)·소(簫)·적(箇)·지(篪)·부(缶)·훈(旛)·슬(瑟)·금(琴) 27종과 방향(方響)·장고(杖鼓)·월금(月琴)·해금(奚琴)·당비파(唐琵琶)·대쟁(大箏)·아쟁(牙箏)·당적(唐笛)·통소(洞簫)·당피리(唐鼙篥)·태평소(太平簫)·현금(玄琴)·가야금(伽倻琴)·향비파(鄉琵琶)·대금(大竽, 중금·소금 포함)·향피리(鄉鼙篥) 16종의 속악기이다. 「가례」에 수록된 「가례」 악현도 전정궁가·전정고취 악현도에 편성된 아악기 건고(建鼓)·삭고(削鼓)·옹고(應鼓) 3종 및 악현도에 나타나지 않는 아악기 도(鼗)와 속악기 교방고(教坊鼓)·박(拍) 총 3종이 포함되었다.

8 정(旌)·독(纛)·휘(麾)·우·약(羽籥), 간·척(干戚), 조축(照燭)이다.

9 성현 저, 『악학궤범』(1993)[민족문화추진회(영인)], 1979) 권6 「아부악기도설」, 19~46쪽; 권7 「당부악기도설」, 47~58쪽; 권7 「향부악기도설」, 65~78쪽.

10 특종(特鐘)·특경(特磬)·편종(編鐘)·편경(編磬)·건고(建鼓)·삭고(削鼓)·옹고(應鼓)·뇌고(雷鼓)·뇌도(雷鼗)·영고(靈鼓)·영도(靈鼗)·노고(路鼓)·노도(路鼗)·도(鼗)·절고(節鼓)·진고(晉鼓)·축(祝)·어(敔)·관(管)·약(籥)·생(笙)·우(竽)·화(和)·소(簫)·적(箇)·지(篪)·부(缶)·훈(旛)·슬(瑟)·금(琴)·옹(應)·아(雅)·상(相)·독(牘)·순(簴)·탁(鐸)·요(鼗)·탁(鐸) 38종.

11 방향(方響)·교방고(教坊鼓)·장고(杖鼓)·박(拍)·월금(月琴)·해금(奚琴)·당비파(唐琵琶)·대쟁(大箏)·아쟁(牙箏)·당적(唐笛)·통소(洞簫)·당피리(唐鼙篥)·태평소(太平簫) 13종.

12 현금(玄琴)·가야금(伽倻琴)·향비파(鄉琵琶)·대금(大竽)·향피리(鄉鼙篥)·소관자(小管子)·초적(草笛) 7종.

구성되었다. 반면, 『증보문현비고』에서는 편찬 시기와 상관없이 문현에 나타나는 악기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미 궁중 의례의 악현에서 제외된 토고(土鼓)나 응(應)·아(雅)·상(相)·독(壻)·순(鍧)·탁(鍔)·요(鏡)·탁(鐸)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실록』 기사에 나타난 ‘부(拊)’라는 악기도 수록하고 있다.<sup>13</sup> 또한 이전의 의례서와 악서의 악기도설에서는 악현에 따라 악기와 의물, 무구뿐 아니라 악기의 제도 등을 모두 악기(樂器)라는 용어로 통괄하고 있는 데 비해, 『증보문현비고』에서는 이들 가운데 음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樂器)’만을 구별하여 조목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 2. 문현별 악기 종류의 비교

조선시대 관찬서(官撰書) 악기도설에 나타난 악기의 종류는 거의 일정한 수를 유지(維持)하지만, 문현에 따라 악기의 가짓수가 들고 남을 볼 수 있다.

『세종실록·오례』의 악기도설에는 아악기 47종과 속악기 20종이 수록되었다. 이에 비해 『국조오례의서례』에는 아악기 진고(晉鼓)와 의물 조축(照燭), 속악기 태평소가 추가되었다. 길례인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의 헌가 악현에 진고(晉鼓)가 추가된 것은 1430년 박연의 상소와 관련이 있고,<sup>14</sup>

13 『세종실록』 권47, 1430년(세종 12) 2월 19일 경인(庚寅) ‘부(拊)’관련 내용. “壞又云: ‘堂上之樂, 擊拊爲先, 拏之爲器, 其用先歌. 陳暘以爲: ‘堂上之樂所待以作者在拊, 堂下之樂所待以作者在鼓.’蓋堂上門內之治, 以拊爲之; 堂下門外之治, 以鼓爲之. 內則父子, 外則君臣, 人之大倫也, 而樂實像之. 以此觀之, 堂上之樂, 不可無拊, 今無之. 考其制作之法, 《周禮》圖說及陳暘之書、林宇《樂譜圖論》不同, 願依一說, 製造用之.」今詳拊之爲器, 體制難定, 宜勿製造.”

14 『세종실록』 권47, 1430년(세종 12) 2월 19일 경인(庚寅). “「按《周禮》《春官》云: ‘鼓人以晉鼓鼓金奏.’【金奏, 擊編鍾也.】《周禮》圖及陳氏禮書樂書內圖懸鼓之狀, 以爲懸鼓, 卽晉鼓也. 【以其進樂故謂之晉鼓, 以其懸設故謂之懸鼓.】陳暘因謂: ‘宮懸設之四隅, 軒懸設之三位’荀子

영도(靈鼗)·노도(路鼗)·뇌도(雷鼗) 등의 악기 배치 또한 1441년 박연의 상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sup>15</sup> 이 악기들은 『세종실록·오례』의 악기도설에도 소개되었으나 악현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국조오례의서례』에 진고(晉鼓)와 함께 각각 사직(社稷)과 종묘(宗廟), 풍운뇌우(風雲雷雨)에 배치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의 길례 종묘와 가례 전정현가는 아악기·당악기·향악기를 혼합 편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세조대의 음악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속악기인 태평소가 길례 종묘(宗廟)의 현가와 가례의 전정현가에 편성되고, 『국조오례의서례』의 악기도설에도 처음 소개되었다. 조축(照燭)은 긴 장대에 촛불을 켜 등(燈)역할을 하는 의물(儀物)로서 밤에 거행하는 의식에서 박(拍) 소리에 따라 휘(麾)와 함께 주악의 절차를 알리는 신호에 쓰인다. 이 조축 역시 악현에 배치된 다른 의물들과 함께 악기도설에 수록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와 비교하여 『악학궤범』에서는 아악기 토고(土鼓)가 제외되었고, 향악기 소관자(小管子)와 초적(草笛)이 새로 등장하였다. 토고는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의 악기도설에 길례 선농(先農) 제사에 배치되는 악기로 소개되었으나 조선시대에 실제로 토고가 제작되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당시 선농(先農)에는 토고(土鼓) 대신에 노고(路鼓)를 사용하고 있었다.<sup>16</sup> 조선전기에는 국가적으로 아악정비와 함께 대대적인 아악기 제작 사업을 벌였고, 아악기 토고에

---

以爲: ‘衆樂之君.’今雅樂大鼓, 似倣此鼓爲之. 然其形制, 與《周官》《韓人》之說不合. 且只作一件, 偏置一隅, 又不懸設, 非制也. 願令備造, 一如周制用之.」今詳軒懸所設雷鼓靈鼓路鼓, 皆不能聲. 今之所用大鼓, 宋人以爲散鼓, 其後代以晉鼓, 乞依宋制用晉鼓一.”

15 『세종실록』 권92, 1441년(세종 23) 1월 6일 갑진(甲辰). “……然制作不古, 故臣以《周官》《韓人》晉鼓之制, 改正其失而依舊, 每祭所各用其一. 其於天神之祀, 雷鼓三架, 依陳賜圖說造六面, 鼓雷鼗亦同. 地祇之祭, 靈鼓三架, 依陳賜圖說造八面鼓, 靈鼗亦同. 人鬼之享, 路鼓三架, 依陳、鄭說, 造四面鼓, 路鼗亦同.”

16 『세종실록』 권47, 1430년(세종 12) 2월 19일 경인(庚寅). “壞又云: 「自古先農之樂, 皆用土鼓, 今用路鼓, 非制也.」”

대한 논의도 하였으나<sup>17</sup> 대략 도고(陶鼓) 정도로 대체하여 만들지 않았나 한다. 다만, 중국문헌을 인용한 토고(土鼓)의 해설과 제작방법이 『세종실록·오례』에 이어 『국조오례의서례』에 실려 있다.<sup>18</sup> 『악학궤범』 악기도설은 실용적 성격이 강한 때문인지 토고(土鼓)는 제외시켰다. 향악기로 소개된 소관자(小管子)와 초적(草笛)은 조선시대 관찬(官撰) 악기도설 가운데 『악학궤범』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악기들이다. 두 악기가 『악학궤범』의 악기진 설도설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대 궁중 의례의 악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적의 경우 『실록』에도 연주기록이 여러 번 나타나고,<sup>19</sup> 영조 갑자년(1744)에 대비전의 진연을 담당한 관현맹인(管絃盲人) 중에 초적(草笛) 연주자 강상문(姜尙文)이 소개되어 있어<sup>20</sup> 초적이 조선 시대 민간이나 궁중에서 두루 사용된 악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악학궤범』이 당대 실제 사용된 악기를 수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7 『세종실록』 권47, 1430년(세종 12) 2월 19일 경인(庚寅). “壞又云:「自古先農之樂, 皆用土鼓, 今用路鼓, 非制也。謹按『禮運』註云:‘土鼓, 築土爲鼓也。」『周禮』註杜子春云:‘以瓦爲匡, 以革爲面。’陳賜則以『禮運』爲據, 而不取子春之說。然雅樂之器, 土音之屬, 皆以瓦爲之, 壞缶之類, 皆是也。上古築土之鼓, 既不能倣, 則姑依子春之說, 陶瓦爲匡, 冒革爲面, 以代上古土鼓之用。」今詳此說, 從之爲便。”

18 『세종실록·오례』 권128 길래서례 악기도설 아악기 토고(土鼓). “《樂書》云:「《禮運》:‘夫禮之初, 始諸飲食, 賢桴土鼓, 猶若可以致其敬於鬼神土。’土鼓賛桴, 伊耆氏之樂也。蓋樂以中聲爲本。土也者, 於位爲中(盈)(央), 於氣爲沖氣, 則以土爲鼓, 以賛爲桴, 所以達中聲者也。《周禮》《籥章》:‘凡逆暑於中春, 迎寒於仲秋, 祈年於田祖, 祭蜡以息老物。’一於擊土鼓而已, 有報本反始之義焉。夫豈以聲節奏之末節爲哉! 此所以猶若可以致其敬於鬼神也。然土鼓之制, 窩土而爲之, 故《禮運》之言土鼓, 在乎未合之前, 與壺涿氏炮土之鼓異矣。杜氏謂以瓦爲阜陶, 【鼓木也】以革爲面, 不稽《禮運》之過也”; 『국조오례의서례』 권1 악기도설 토고(土鼓). “然土鼓之制窪土而爲之故禮運之言土鼓在乎未合之前與壺涿氏炮土之鼓異矣杜氏謂以瓦爲阜陶 鼓木也以革爲面不稽禮運之過也”

19 『연산군일기』에 외방에서 올라온 기생 중에 초적(草笛)이나 초금(草竽), 풀피리 등을 잘 불었던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20 국립국악원, 『한국음악자료총서 30: 진연의궤(영조 갑자년 1744)』(국립국악원, 1992), 34-36쪽. 악가무차비(樂歌舞差備) 중 ‘풍물차비기생(風物差備妓生)’에 ‘관현맹인 13인’

의례서 『춘관통고(春官通考)』(1788)와 『대한예전(大韓禮典)』(1898)의 악기도설은 조선전기 의례서인 『국조오례의서례』의 목록과 비교가 용이하다. 『춘관통고』는 『오례의통편(五禮儀通編)』을 저본으로 만든 조선후기의 방대한 전례서(典禮書)로서 내용에 따라 ‘원의(原儀)<sup>21</sup>’를 붙여, 성종대의 의례서 의주(儀註)를 참고했다. 길례와 가례에 각각 수록된 원의(原儀)아부 악기도설, 원의(原儀)속부악기도설, 원의(原儀)악기도설의 구성 및 내용이 『국조오례의서례』(1474)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악학궤범』(1493) 악기도설 목록에서는 제외되었던 토고(土鼓)가 『춘관통고』에는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악기 그림을 『국조오례의서례』를 따르지 않고 『악학궤범』의 악기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점<sup>22</sup> 등은 주목된다. 한편, 『대한예전』은 『국조오례의서례』와 비교하면 토고(土鼓)<sup>23</sup>와 응(應)·아(雅)·상(相)·독(牘)·순(鈸)·탁(鑷)·요(鐃)·탁(鐸)이 제외되어 있다. 이는 당대 쓰이지 않는 악기(의 물)는 배제한 것으로서, 대한제국기의 악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문헌에 나타난 악기도설을 살펴보면 문헌별로 악기종류의 가감을

21 『춘관통고』는 의주를 표기할 때 ‘原儀’, ‘續儀’, ‘今儀’의 구분을 확실히 하였다. 즉 성종대 『국조오례의』의 儀註를 ‘原儀’로, 영조대 『국조속오례의』의 의주를 ‘續儀’로, 그리고 정조대 당시 통행되는 의주를 ‘今儀’로 칭하여 典章으로서 참고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모두 『오례의통편』을 따른 것이다. 『弘齋全書』卷164, 「日得錄」 4, 「文學」 4. “國朝典禮, 專用五禮儀, 而遵 …… 行既久, 沿革甚多, 列朝故實, 不無於何考之歎. 今此一書, 竝列原續儀, 而添附時行儀節, 兼採公私文籍之明的可信者, 謹依『大明集禮』之例, 彙分條列, 衰成一秩, 總名之曰『春官通考』. …… 然此書與『五禮儀通編』, 同時纂輯, 而凡例已悉於通編, 故此不疊錄. 原五禮則稱原儀, 繼五禮則稱續儀, 今行儀註之稱今儀, 亦一依通編之例.”(송지원, 『정조의 음악정책』(태학사, 2007), 143-146쪽에서 재인용)

22 『국조오례의서례』와 『악학궤범』의 악기 제도(制度)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진고(晉鼓)를 들 수 있는데, 『춘관통고』는 『악학궤범』의 것을 따랐다. 본고의 IV. 악기 그림[圖]의 특징 참조.

23 조선 전기까지 선농(先農)에는 토고(土鼓)를 쓴다 하여,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에는 토고(土鼓)가 소개되어 있는데, 『세종실록』에 의하면 선농에 ‘토고’ 대신 ‘노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과 더불어 『악학궤범』의 악기도설에서도 ‘토고’가 제외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대한예전』에서도 토고(土鼓)는 사라졌다.

엿볼 수 있다. 이는 이전 시기의 문헌을 참조하여 수록하는 외에도 당대 악현(樂懸)을 반영하는 이중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문헌에 따라 악기도설의 맥락을 잘 살펴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 3. 악기 분류 및 계통적 이해의 변화

조선시대 악기도설에 수록된 악기들은 아악기와 속악기로 양분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 궁중 의례의 음악이 아악과 속악으로 대별되었음을 의미하고, 소용에 따라 악기를 분류한 것이다. 이는 ‘음악적 계통에 의한 분류’로 일컬어져 조선시대 대표적인 악기분류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악학궤범』은 음악을 아악과 속악으로 구분하면서도 악기는 연원에 따라 아·당·향악기로 분류하고 있다.<sup>24</sup> 이에 『악학궤범』 외 조선시대 악기도설에 나타난 악기의 분류가 단순히 아·속악의 소용에 따른 분류인지, 악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악기의 분류와 계통을 이해하는 방식을 재고찰해보고자 한다.

#### 1) 『세종실록·오례』에 나타난 아악기·속악기의 생(笙)·화(和)·우(竽)

『세종실록·오례』에는 생·화·우가 아악기인 동시에 속악기로 되어 있다. 각각 「길례서례」의 아악기와 「가례서례」의 속악기로 소개되었다. 「가례서례」에는 해설이 없고 그림만 실려 있어 악기의 정확한 연원이나 크기, 구조 등을 알 수 없지만, 두 종(種)의 악기를 도상(圖像)으로 비교했을 때 한눈에도 관(管)의 수(數) 및 전체적인 악기의 외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

24 정화순, 「조선전기 문헌에서의 국악기 분류법에 대한 검토」, 『온지논총』 권15호 (2006), 396쪽.

조선시대 의례서의 악기도설 편찬 방식으로 보아 「가례서례」 악기도설은 「길례서례」와 중복되는 악기들의 수록을 생략하였는데, 이에 비해 생·화·우는 「가례서례」에 재차 소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이 악기들이 아악기용·속악기용으로 구분하여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속악기 생·화·우의 도상 아래에 “說見吉禮”라 하여 아악기 생·화·우를 참고하도록 한 것이 이 악기들이 같은 류(類)인 것을 방증하며, 단지 도상에 나타나는 차이로 두 종(種)의 악기들이 음악적으로 다른 계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국조오례의서례』 악기도설에서 당피리를 빌어 향피리를 설명한 것<sup>25</sup>처럼 해설이 같더라도 악기의 제도적 차이의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 생(笙)류의 악기는 고려 1076년(문종 30) 대악관현방(大樂管絃房)에 생업사(生業師)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sup>26</sup> 일찍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114년(예종 9) 송나라 휘종(徽宗)이 보낸 신악(新樂)에도 여러 당악기들과 함께 포생(匏笙) 10찬(攢)이 포함되어 있었다.<sup>27</sup> 고려시대의 궁중에서는 송의 교방악(教坊樂)과 사악(詞樂)을 수용하면서 당악(唐樂)을 확대하였고, 생(笙)은 다른 당악기들과 함께 연주되었다. 1116년(예종 11)에 휘종(徽宗)이 대성아악(大晟雅樂)을 보내었을 때 많은 아악기들 가운데 소생

25 『국조오례의서례』에 도(鼗)는 “說見吉禮雷鼗”로, 향피리(鄉鼙篥)는 “說見上倣唐制而爲之惟八竅”로 표기되었다.

26 『高麗史』 卷80 15a9~15b3 식화지(食貨志) 녹봉(祿俸). “大樂管絃房 米一科十石 唐舞業兼唱詞業一 笙業師一 唐舞師校尉一 八石御前兩部都廳 七石琵琶業師 校尉 閣門使同正 二科八石杖鼓業師二 唐笛業師二 鄉唐琵琶業師各一 方響業師 校尉一 痢郎業師一 歌舞拍業師一 中魁業師一.”

27 『고려사』 권70 志24/樂1/雅樂/ 송신사악기(宋新賜樂器). 당시 들어온 악기는 철방향(鐵方響) 5가(架), 석방향(石方響) 5가(架), 비파(琵琶) 4면(面), 오현금(五絃琴) 2면(面), 쌍현금(雙絃琴) 4면(面), 공후(箜篌) 4좌(座), 필률(觱篥) 20관(官), 적(笛) 20관(官), 지(篪) 20관(管), 소(簫) 10면(面), 포생(匏笙) 10찬(攢), 훈(熏) 40매(枚), 대고(大鼓) 1면(面), 장고(杖鼓) 20면(面), 박판(拍板) 2천(串)이다.

(巢笙)·화생(和笙)·우생(竽笙)이 포함되었고,<sup>28</sup>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생·화·우가 아악기로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당악(唐樂)에 사용되었던 악기와 이악기(雅樂器)로서 새로 들어온 생(笙)류 악기를 구분하였던 관행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세종실록·오례』와 달리 『국조오례의서례』에서는 「길례」 등가와 「가례」 고취에 편성된 생·화·우를 같은 '아악기'로 소개하였다. 이후 편찬되는 악기도설에서 생·화·우는 '아악기'로 정착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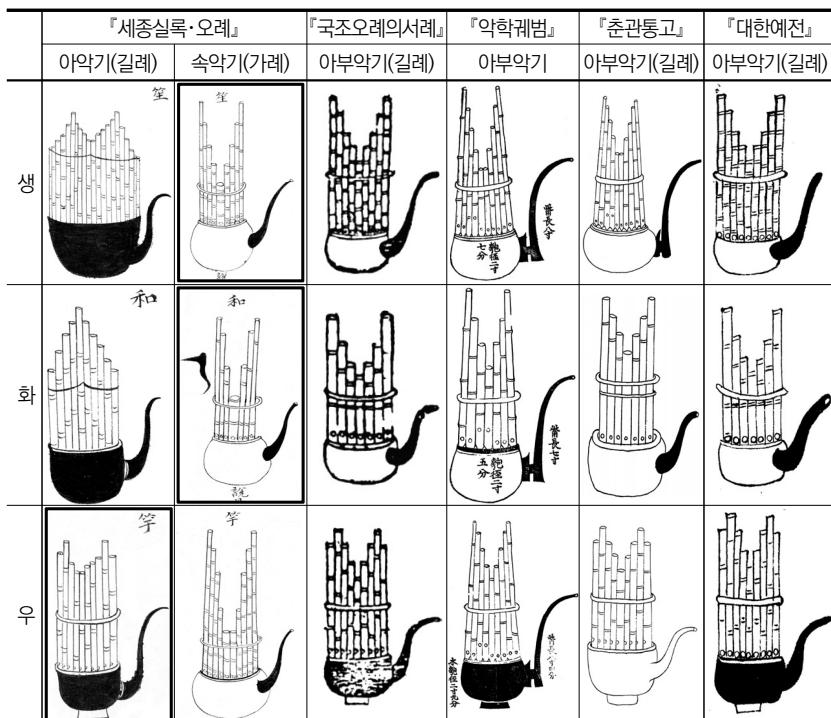


그림1-조선시대 악기도설에 나타난 생·화·우의 전승

28 『고려사』 권70 志24/樂1/雅樂/유사섭사등가현가(有司攝事登歌軒架). 등가악기(登歌樂器)·현가악기(軒架樂器).

악기도설에 나타난 악기들의 그림 중 生(笙)·화(和)의 모양이 『세종실록·오례』의 「가례서례」에 속악기의 모양과 흡사한 것이다. 이에 반해 우(竽)는 「길례서례」 아악기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설은 아악기를 따르면서, 그림은 어떤 연유에서 각각 '아악기' 또는 '속악기'의 모양을 따랐는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세종실록·오례』의 소개된 두 종류의 생·화·우와 이후 악기도설에 나타난 생·화·우의 그림을 비교하면 그림1과 같다.

즉, 그림1을 통해 생(笙)·화(和)의 경우 『세종실록·오례』의 속악기 형태로, 우(竽)는 아악기 형태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난 악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증보문헌비고』의 「악고(樂考)」에는 총 62종의 악기(樂器)가 수록되어 있다. 62종의 악기 구성이 이전시기에 편찬된 악기도설의 구성과 비교된다. 의례서와 악서의 악기도설은 궁중 의례의 악현에 편성된 악기(樂器) 및 의물(儀物), 무구(舞具) 등을 모두 '악기(樂器)'로 통괄하였고, 의례서의 경우는 악기의 제도(制度)에 관한 설명까지 조목(條目)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증보문헌비고』는 악현의 배치와 상관없이, '음악을 연주하는 기구'로서 개체화 된 '악기'를 구별하고 있다. 이는 62종의 악기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 알 수 있다.

조선조 내내 의례서와 악서의 악기도설에 포함되어있던 정(旌)·득(纛)·휘(麾)·우약(羽籥)·간척(干戚)·조촉(昭燭)과 같은 의물(儀物)을 '악기(樂器)'의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정재(呈才)에 쓰였던 무구(舞具)들 가운데 대고(大鼓)·소고(小鼓)·향발(響鉦)·동발(銅鉦) 등은 새로이 '악기(樂器)' 목록으로 편입시켰다. 이 새로운 악기들의 해설은 각각 『악학궤범』의 '당악정재의물도설(唐樂呈才儀物圖說)'과 '시용향악정재도설(時用鄉樂呈才圖說)'에서 인용하고 있다. 각 기물(器物)들에 대하여 악현의 편성이나 용도에 상관없이 '악기'

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의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며, 조선시대 악기도설 문헌에서 근대적인 ‘악기’의 개념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62종의 악기에 대하여 형태·기능·주법 등의 악기학적(樂器學的) 관점에 따라 49계통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편종(編鐘)과 특종(特鐘)을 동종(同種)의 악기로 묶어 설명하였고, 이 외에도 생(笙)·화(和)·우(竽), 당비파(唐琵琶)와 향비파(鄉琵琶), 대쟁(大箏)·아쟁(牙箏)·알쟁(戛箏) 등을 각각 한 계통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음악적 계통 분류에 따르면, 향비파와 당비파는 각각 향악기와 당악기에 속하는 것이나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이 두 악기를 동종(同種) 계통의 악기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난 악기 분류방식 중 아부(雅部)·속부(俗部)의 분류에서 조선시대 다른 의례서 및 악서의 악기도설과 상이(相異)한 점이 발견되는데, 조선 초기부터 ‘아악기’로 분류되어 온 절고(節鼓)가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속부(俗部)악기로 편입된 점이다. 절고(節鼓)조 해설에는 『국조오례의서례』와 『악학궤범』을 인용하여, 악기가 당나라 아래 아악(雅樂)에 쓰이고 있음을 명기(明記)하는 바,<sup>29</sup> 속부(俗部)악기로의 분류가 악기의 소용에 의한 분류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문헌 『악서』<sup>30</sup>와 『문현통고』<sup>31</sup>에서 절고(節鼓)가 아부(雅部)가 아닌 속부(俗部)의 악기로 소개되어 있는 것과 연관성을 상고해 볼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가 1770년(영조 45)에 『동국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처음 집필되었을 때, 『문현통고』의

29 『증보문헌비고』 악고(樂考)7 악기(樂器) 혁속(革屬) 속부(俗部) ‘절고(節鼓)’. ‘五禮儀圖說 曰文獻通考云江左清樂有節鼓狀如突局朱髹畫其上中開圓竅適容鼓焉擊之以節樂也自唐以來 雅樂聲歌用之所以興止登歌○樂學軌範曰節鼓非徒用於興止奏樂之時間擊與軒架晉鼓之用同’

30 진양, 『악서』 권138 「악고」 악도론(樂圖論) 속부(俗部)/팔음(八音)/혁지속(革之屬) 절고(節鼓).

31 마단림, 『문현통고』 권136 「악고」 혁지속(革之屬)/속부(俗部) 절고(節鼓).

범례(凡例)를 따르도록 하였고,<sup>32</sup> 이에 『문현통고』를 참고한 기술방식 및 편제가 나타난다. 특히, 「악고(樂考)」에서는 악기(樂器)를 제작 재료에 따라 8음으로 나누고, 8음 분류 안에서 다시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의 계통으로 분류한 것이 『문현통고』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다만, 『문현통고』는 악기를 아부(雅部)·호부(胡部)·속부(俗部)로 나누고 있는데, 『증보문현비고』는 아부(雅部)와 속부(俗部)로만 구별한 차이가 있다. 조선에도 아부(雅部)·당부(唐部)·향부(鄉部)의 삼부악(三部樂) 개념이 있었다.<sup>34</sup> 『악학궤범』은 음악 계통을 아부(雅部)·당부(唐部)·향부(鄉部)로 분류하였다.<sup>35</sup>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당부(唐部)와 향부(鄉部)의 구별이 실용적이지 못하여,<sup>36</sup> 『증보문현비고』에서는 『문현통고』의 삼부(三部)를 따르지 않고, 아부(雅部)와 속부(俗部)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문현에 수록된 중국측 악기의 종류가 우리나라와 달라서 모든 악기를 일일이 대조할 수 없는 점에서 『증보문현비고』에 나타난 악기의 계통 분류가 중국문화에 의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시대 악기도설(樂器圖說)에 나타난 악기의 조목들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2 『영조실록』 권113 1769년(영조 45) 12월 24일 임신(壬申). “○命刊《東國文獻備考》。其書凡例，悉倣《文獻通考》，而只蒐輯我朝事。選文學之臣，以領之晝夜董役。”

33 송지원, 「18세기 조선 음악지식集成의 방식」, 『한국문화』 제57집(2012), 138-139쪽.

34 『세종실록』 권47, 1430년(세종 12) 2월 19일 경인(庚寅). “埂又云：「樂書纂集一事，臣所極慮。今詳我朝所用三部之樂，皆未整齊，而雅部尤甚焉。」”

35 단, 『악학궤범』의 아부(雅部)·당부(唐部)·향부(鄉部)의 악기 분류는 음악적 계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악기의 연원에 따른 것이다.(정화순, 「조선전기 문현에서의 국악기 분류법에 대한 검토」, 『온지논총』 권15호(2006), 392-394쪽.)

36 송지원(2012), 앞의 논문, 139-140쪽.

표1-조선시대 악기도설(樂器圖說)에 나타난 악기분류 및 종류

	아악기 47조목	속악기 20종	
세종실록·오례 길례서례 “악기도설” 가례서례 “악기”	(악기)가종·가경·편종·편경·뇌고·뇌도·영고·영도·노고·노도·토고·죽·어·관·약·화·생·우·소·적·지·부·훈·금·슬·순·탁·요·탁·응·아·상·독·건고·을고·삭고·도·절고 <sup>37</sup> (의물)정·독·휘·우무·간무·(제도)종제·종거·경제·경거	화·생·우·방향·당비파·당피리·적·대쟁·아쟁·장고·통소·월금·해금·교방고·박·현금·가야금·향비파·대금(중금·소금포함)·향피리	
	아부악기 47조목	속부악기 18종	
국조오례의서례 길례·가례 “악기도설”	(악기)특종·특경·편종·편경·뇌고·뇌도·영고·영도·노고·노도·토고·절고·진고·죽·어·관·약·생·화·우·소·적·부·지·훈·슬·금·순·탁·요·탁·응·아·상·독·건고·을고·삭고·도 <sup>38</sup> (의물)정·독·휘·우약·우약·간척·조축·(제도)종·경	방향·당비파·당피리·당적·대쟁·아쟁·장고·통소·월금·해금·교방고·박·현금·가야금·향비파·대금(중금·소금포함)·향피리·태평소	
악학궤범 “아부·당부· 향부 악기도설”	아부악기 44조목	당부악기 13종	향부악기 7종
	(악기)특종·특경·편종·편경·뇌고·뇌도·영고·영도·노고·노도·도·절고·진고·건고·삭고·을고·죽·어·관·약·생·화·우·소·적·부·지·훈·슬·금·순·탁·요·탁·응·아·상·독·(의물)정·독·휘·우약·간척·조축	방향·당비파·당피리·당적·대쟁·아쟁·장고·통소·월금·해금·교방고·박·현금·가야금·향비파·대금(중금·소금포함)·향피리·소관자·초적	현금·가야금·향비파·대금(중금·소금포함)·향피리·소관자·초적
춘관통고 “원의아부· 원의속부 악기도설”	아부악기 47조목	속부악기 18종	
	(악기)특종·특경·편종·편경·뇌고·뇌도·영고·영도·노고·노도·토고·절고·진고·죽·어·관·약·생·화·우·소·적·부·지·훈·슬·금·순·탁·요·탁·응·아·상·독·건고·을고·삭고·도 <sup>39</sup> (의물)정·독·휘·우약·간척·조축·(제도)종·경	방향·당비파·당피리·당적·대쟁·아쟁·장고·통소·월금·해금·교방고·박·현금·가야금·향비파·대금(중금·소금포함)·향피리·태평소	
대한예전 길례·가례 “악기도설”	아부악기 38조목	속부악기 18종	
	(악기)특종·특경·편종·편경·뇌고·뇌도·영고·영도·노고·노도·절고·진고·죽·어·약·화·생·우·소·적·부·지·훈·관·슬·금·건고·을고·삭고·도 <sup>40</sup> (의물)정·독·휘·우약·간척·조축·(제도)종·경	방향·당비파·당피리·당적·대쟁·아쟁·장고·통소·월금·해금·교방고·박·태평소·현금·가야금·향비파·대금·향피리	

아부 38종		속부 24종
금속	편종·편경·순·요·탁·탁	방향·향발·동발
증보문현비고 “악기”	석속	경
	사속	금·슬
	죽속	소·약·관·적·지
	포속	생·우·화
	토속	훈·상·부·토고
	혁속	진고·뇌고·영고·노고·뇌도· 영도·노도·건고·삭고·옹고
	목속	부·웅·아·독·죽·지·어·진·거·순; 숭야;수우

### III. 악기 해설[說]의 구성 및 내용

조선시대 악기도설(樂器圖說)이 처음 수록된 문현은 『세종실록·오례』이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어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악기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고려사』 「악지」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오례』 악기도설이 『주례도(周禮圖)』와 『악서(樂書)』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고 있는바 편찬 형식에서도 두 중국문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례도』는 중국 『주례(周禮)』의 내용을 그림으로

37 도표에서 밑줄 친 악기들은 『세종실록·오례』 권132 「가례서례」 “악기”에 소개된 악기이다.

38 도표에서 밑줄 친 악기들은 『국조오례의서례』 권2 「가례」 “악기도설”에 소개된 악기이다.

39 도표에서 밑줄 친 악기들은 『춘관통고』 권49 「가례」 “원의악기도설”에 소개된 악기이다.

40 도표에서 밑줄 친 악기들은 『대한예전』 권5 「가례」 “악기도설”에 소개된 악기이다.

그리고, 주석을 모아놓은 책으로,<sup>41</sup> 음악과 관련해서는 종(鐘)·경(磬)·편종(編鐘)·편경(編磬) 및 건고(建鼓)·뇌고(雷鼓)·영고(靈鼓)·노고(路鼓)와 같은 각종 북[鼓] 종류와 죽(柷)·어(敔) 등의 악기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악서(樂書)』는 중국 송나라 휘종(徽宗, 1101-1126) 때 진양(陳暘)이 40여 년에 걸쳐 중국 역대의 음악이론과 악기·춤·노래 등 악(樂)과 관련된 것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음악서적으로, 방대한 악기의 내용이 그림과 해설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sup>42</sup>

『세종실록·오례』의 악기도설은 이후에 편찬된 조선 문현들의 악기도설에 영향을 주었다. 기술방식 및 악기의 해설이 재인용 또는 편집인용 되었고, 악기의 그림도 참고 또는 모사(摹寫)되었다. 이 과정은 편찬 시기 순서에 따라 『세종실록·오례』, 『국조오례의서례』, 『악학궤범』, 『춘관통고』, 『대한 예전』, 『증보문헌비고』의 차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각 문현에 수록된 악기해설의 구성과 집필방식 및 인용문 출처 등의 내용을 검토·비교하여 문현간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 1. 『세종실록·오례』

『세종실록·오례』에서 악기의 해설이 있는 것은 「길례서례」에 소개된 아악기 42조목에 해당한다.<sup>43</sup> 해설은 모두 중국문현에 의거한 인용문으로

41 『주례도(周禮圖)』는 『주례경도(周禮經圖)』를 말하며, 『찬도호주주례(纂圖互註周禮)』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 주(周)왕실의 관직 제도와 전국시대(戰國時代) 각 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원래의 이름은 『주관(周官)』 또는 『주관경(周官經)』이었는데 전한(前漢) 말에 경전에 포함되어 『주례』라고 하였다.

42 1200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고, 원대(元代, 1347)·명대(明代)·청대(清代, 1876)에도 간행되었다(김종수, 『세종대 야악(雅樂) 정비와 진양(陳暘)의 『악서(樂書)』』, 『온지학회』 제15집(2016), 94쪽).

43 『세종실록·오례』의 「길례서례」에는 악기의 그림과 해설이 있고, 「가례서례」에는

표2-『세종실록·오례』 「길례서례」 악기도설의 인용문헌

인용문헌	악기
『주례도』	종제(鐘制)·종가(鐘虞)·경제(磬制)·경가(磬虞)·관(管)·악(籥)·적(箇)· 훈(埙)·지(篪)
『악서』	가종(歌鐘)·가경(歌磬)·편종(編鐘)·편경(編磬)·토고(土鼓)·죽(柷);지(止)· 어(敔);진(鎛)·부(缶)·금(琴)·득(瑟)·정(旌)·휘(麾)·순(鈸)·탁(鑪)·요(鐃)· 탁(鐸)·응(應)·아(雅)·상(相)·독(牘)·우무(羽舞)
『예서』	생(笙)·화(和)·우(竽)·슬(瑟)
『주례도』·『악서』· 『예서』	노고(雷鼓)·노도(雷鼗)·영고(靈鼓)·영도(靈鼗)·노고(路鼓)·노도(路鼗)
『주례도』·『대성악보』	소(簫)
『악서』·『예서』	간무(干舞)

된 것이 특징이다. 직접 인용된 중국문헌은 『주례도』·『악서』·『예서』·『대성악보』 4종이고, 각 문헌을 인용하고 있는 악기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4종의 문헌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주례도』와 『악서』이다. 『주례도』와 『악서』는 이미 다른 중국문헌들에 나타난 악기 관련의 기사(記事)를 모아놓은 형식으로, 이 문헌을 인용한 악기의 해설은 직접인용에 의해 2차적인 간접인용으로 구성된다. 예로, '편경(編磬)'의 해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소서(小胥)가 대개 종(鐘)과 경(磬)을 달 적에 반은 도(堵)가 되고, 전체는 줄[肆]이 된다.”고 하였다. 정강성(鄭康成)이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편경(編磬)과 현경(懸磬)의 16매(枚)가 1거(虞)에 같이 있는 것을 도(堵)라 이르고, 종과 경 각기 1도씩을 줄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예도(禮圖)』

악기의 그림만 실려 있다.

에는 그 8음의 수를 배(倍)로 하여 그대로 한 것을 취하였으나, 이것은 종과 경이 다만 8음의 두 가지인 것을 알지 못함이니, 그 수를 취했다고 이르는 것이 옳겠는가. 전동(典同)이 무릇 악기(樂器)를 만들 적에 12율로써 수도(數度)로 하고, 12성(聲)으로써 제량(齊量)을 삼았다면, 편종(編鐘)과 편경(編磬)도 12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16이라고 이르는 것이 옳겠는가.<sup>44</sup>

위 해설과 같이 편경에 대한 해설 전체는 『악서』의 인용문이다. 그리고 인용문 안에는 『예도』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직접인용문에 의한 간접인용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종실록·오례』의 아악기 42조목 가운데 이같은 형식으로 1·2차 사료가 나타나는 경우는 표3과 같다.

간접 인용에 사용된 문헌들은 『예서(禮書)』·『광야(廣雅)』·『시경(詩經)』·『대성악서(大晟樂書)』·『이야(爾雅)』 등이다. 『세종실록·오례』에서는 간접 인용된 사료들에 대하여 원전을 확인하거나 검토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차용(借用)하였다. 중국문헌을 근거로 조선에서 쓰이는 악기들의 연원(淵源)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악서』와 『주례도』의 내용이 그렇듯이 대부분이 악기 관련 기사(記事)들을 여기저기서 발췌한 형식으로 해설에 대한 체계가 없고, 각 악기마다 내용의 양(量)과 성격에 많은 차이가 있다.

44 “編磬《樂書》云：「小胥，凡懸鐘磬，半爲堵，全爲肆。」鄭康成釋之謂：‘編懸之十六枚，同在一虞，謂之堵；鐘磬各一堵，謂之肆。’禮圖取其倍八音之數而因之，是不知鐘磬特八音之二者爾，謂之取其數可乎！典同凡爲樂器，以十有二律爲之數度，以十有聲爲之齊量，則編鐘編磬，不過十二爾，謂之十六可乎！」”

표3-『세종실록·오례』 길례서례 악기도설의 1·2차 인용문헌

	2차 사료	1차 사료(원전)
종제	『주례도』	『예서(禮書)』
증거	『주례도』	『예서(禮書)』
편경	『악서』	『예도(禮圖)』
토고	『악서』	『예운(禮運)·『주례(周禮)』
죽·지	『악서』	『이아(爾雅)』
어·진	『악서』	『이아(爾雅)』
화·생·우	『예서』	『의례(儀禮)·『주례(周禮)』·『이아(爾雅)』
소	『주례도』, 『대성악보』	『광아(廣雅)』
훈	『주례도』	『시경(詩經)』
지	『주례도』	『대성악서(大晟樂書)』
슬	『예서』	『악기(樂記)』
둑	『악서』	『시경(詩經)·『이아(爾雅)』
정	『악서』	『태악소용(太樂所用)』
휘	『악서』	『주관(周官)』·『서경(書經)』·『당악록(唐樂錄)』
순	『악서』	『주관(周官)』
탁	『악서』	『주관(周官)』
요	『악서』	『주관(周官)』·『설문(說文)』
탁	『악서』	『주관(周官)』
응	『악서』	『주관(周官)』·『예도(禮圖)』·『당악도(唐樂圖)』· 『대주정악(大周正樂)』
상	『악서』	『이아(爾雅)』·『악기(樂器)』
독	『악서』	『주례도(周禮圖)』
우무	『악서』	『시경(詩經)』

\* 표에 나타난 『주례(周禮)』와 『주관(周官)』은 동일한 문헌이나, 『세종실록·오례』 악기도설 해설 원문에 표기된 방식을 따라 책명을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함.

## 2. 『국조오례의서례』

『국조오례의서례』, 『길례』·『가례』에 수록된 아악기 47조목과 속악기 18종의 해설은 『세종실록·오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국문헌에 의거한 인용문이다. 『국조오례의서례』는 『세종실록·오례』를 기초로 편찬한 것으로

표4-『국조오례의서례』의 악기 해설 인용문헌 비교

	악기	『세종실록·오례』 인용 문헌	『국조오례의서례』 추가 인용 문헌	비고
1	편경	『주례도』(경기)		전부인용
	종	『주례도』		
	경	『주례도』		
	토고	『악서』		
	축·지	『악서』		
	어·진	『악서』		
	소	『주례도』·『대성악보』		
	부	『악서』		
	금	『악서』		
	득	『악서』		
	정	『악서』		
	지	『주례도』		
	요	『악서』		
	탁	『악서』		
2	아	『악서』		전부인용 및 추가
	독	『악서』		
	편종·특종	『주례도』(종거)	『문현통고』	
	관	『주례도』	『악서』	
	약	『주례도』	『문현통고』	
	훈	『주례도』	『악서』	
3	휘	『악서』	『대성악보』	부분인용
	적	『주례도』	주(注)	
	탁	『악서』		
	노고·노도·영고 영도·노고·노도	『주례도』·『예서』	『악서』·『문현통고』	
	화·생·우	『예서』	『문현통고』	
4	슬	『예서』	『악서』	부분인용 및 추가
	순	『악서』	『문현통고』	
	응	『악서』	『문현통고』	
	상	『악서』	『문현통고』	
	우	『악서』	『문현통고』	

간	『악서』	『악서』
건고		『악서』
삭고		『문현통고』
응고		『악서』
도		.
절고		『문현통고』
진고		『문현통고』
조촉		주(注)
방향		『악서』
박		『문현통고』
교방고		『문현통고』
월금		『문현통고』
장고		『문현통고』
5 당비파		『악서』·『석명』·『문현통고』
해금		『문현통고』
대쟁		『문현통고』·『풍속통』
아쟁		『악서』
당적		『문현통고』
당피리		『악서』
통소		『석명』·『고려사(高麗史)』 왕자연의 『통소부(洞簫賦)』
태평소		.
현금		『삼국사(三國史)』
행비파		『삼국사(三國史)』
기야금		『삼국사(三國史)』
대금(중금·소금)		『삼국사(三國史)』
향피리		.

신작(新作)<sup>45</sup>

로 두 문현의 악기 해설은 선·후적 관계로서 비교 가능하다. 두 문현을 비교하여 『국조오례의서례』 해설이 집필된 방식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45 도표에는 신작(新作)이라 표기하였으나, 도(鼗)는 '뇌고를 참조', 향피리(鄕鼙篥)는 '당피리를 참조'라고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태평소는 해설이 없고 그림만 있다.

첫 번째는 두 문현의 해설이 동일한 경우로 ‘전부인용’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전부인용’에 더불어 추가적인 해설을 더한 경우로서 ‘전부인용 및 추가’이다. 세 번째는 『세종실록·오례』의 해설 중 일부분만을 취한 경우로 ‘부분인용’이고, 네 번째는 ‘부분인용’을 적용한 후에 추가적인 해설을 더한 경우로 ‘부분인용 및 추가’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세종실록·오례』에는 그림만 나타났던 악기들<sup>46</sup> 및 『국조오례의서례』에 처음 소개된 악기들에 대하여 새롭게 해설을 집필한 부분으로 ‘신작(新作)’에 해당한다. 각 악기 해설의 구성을 상기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 표4와 같다.

『국조오례의서례』가 『세종실록·오례』의 해설을 외에 추가적으로 인용에 사용한 문현은 주로 『문현통고』와 『악서』이다. 『문현통고』는 중국 송나라시대 마단림(馬端臨, 1254-1323)이 중국 고대부터 송대까지의 제도를 논한 백과사전식 저술인데, 조선의 제례작악(祭禮作樂)이 당·송의 제도를 본받음에 따라 이 『문현통고』가 조선 궁중음악의 전거(典據)로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현통고』는 고려 말에 유입되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궁중 여러 곳의 참고서적 역할<sup>47</sup>을 하였는데, 악기 관련의 사료로서는 『국조오례의서례』에 처음 활용되었다.

『세종실록·오례』와 비교한 다섯 가지 형태의 해설 집필 방식 중에서 ‘전부인용’하거나 ‘전부인용 및 추가’한 경우에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지만, ‘부분인용 및 추가’의 경우는 악기의 모양과 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뇌고(雷鼓)·뇌도(雷鼗)·영고(靈鼓)·영도(靈鼗)·노고(路鼓)·노도(路鼗)·도(鼗) 등을 들 수 있다. 이 악기들은 북면[鼓面]의 수(數)와 모양 등이 『세종실록·오례』에 나타난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세종실록·오례』

46 『세종실록·오례』의 「가례서례」에 속악기 20종은 해설이 없고, 악기의 그림만 실렸다.

47 김소희, 「『문현통고』 경적고의 서지학적 가치에 관한 재고」, 『서지학보』 제33호 (2009), 108쪽.

가 『주례도』에 의거해 악기의 제도(制度)를 받아들였다면, 『국조오례의서례』는 『악서』에 의거하여 악기 제도를 정립해 나갔기 때문이다. 송나라 문헌인 『문현통고』와 『악서』를 더욱 중요시하여 송나라 제도를 계승하고자 했던 당시 악학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으로 해설이 집필된 '신작(新作)'은 아악기 7종과 속악기 18종에 해당한다. 이 악기들은 『세종실록·오례』에서 그림으로만 소개되었던 악기들<sup>48</sup>과 『국조오례의서례』에 처음 등장한 진고(晉鼓)와 조촉(照燭), 태평소이다. 새로 집필된 악기의 해설도 대부분 『문현통고』·『악서』·『석명』·『풍속통』 등의 중국문헌을 인용하였는데, 현금·향비파·가야금·대금 4종의 악기에 대하여는 한국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인용하였다.

이 밖에 악기해설에서 인용문을 사용하지 않고 편찬자가 직접 집필한 부분[주(注)]은 전체 중에 적(鑑)과 조촉(照燭) 두 군데에 나타난다. 적(鑑)은 '송조에서 보내온 적(鑑)'이라는 소개와 악기의 제도를 설명한 것이고, 조촉(照燭)은 의물(儀物)의 형태와 소용(所用)을 설명한 것인데, 두 조항 모두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 3. 『악학궤범』

『악학궤범』 악기도설에는 총 64종의 악기에 대한 해설이 있다. 해설은 중국문헌의 인용문과 편찬자의 주(注)로 구성되었는데, 중국문헌 인용문은 모두 『국조오례의서례』의 내용과 일치하한다. 『국조오례의서례』에서 편

48 「길례」의 아악기 건고(建鼓)·삭고(朔鼓)·옹고(應鼓)·도(鼗) 4종 및 「가례」의 속악기 화·생·우·방향·당비파·당피리·적·대쟁·아쟁·장고·통소·월금·해금·교방고·박·현금·가야금·향비파·대적·향피리 20종이다. 이 중 『국조오례의서례』에는 속악기 화·생·우가 제외되었다.

표5-『악학궤범』 해설의 인용문헌과 편집자 주(注)

	『국조오례의서례』 인용 문헌	『악학궤범』 추가 내용
특종	『주례도』(鐘)	용도, 재료, 음고, 제작법
편종	『주례도』·『문현통고』	재료, 연주법, 가자장식
특경	『주례도』(磬)	용도, 재료, 음고, 제작법
건고	『악서』	용도, 재료, 제작법, 가자장식
식고	『문현통고』	용도, 다른이름
응고	『악서』·『시경』·『이야』	용도, 다른이름
뇌고·뇌도	『주례』·『악서』·『문현통고』	용도, 색깔, 사용여부
절고	『문현통고』	용도
진고	『문현통고』	용도, 현행체제
축·지	『악서』	재료, 연주법, 다른이름, 모양, 그림장식
어·진	『악서』	재료, 연주법, 다른이름
관	『주례도』·『악서』	제작법, 악기그림 설명
약	『주례도』·『문현통고』	재료, 제작법, 연주법
화·생·우	『예서』·『문현통고』·『대성악보』	재료, 제작법, 연주법
소	『주례도』	재료, 제작법, 음고, 색깔
적	『주례도』·편찬자 주(注)	재료, 제작법
부	『악서』	재료, 제작법, 현행연주제도
훈	『주례도』·『악서』	재료, 제작법, 악기체제
지	『주례도』	재료, 제작법
슬	『예서』·『악서』	재료, 연주법, 음고, 색깔, 그림장식, 모양
금	『악서』	재료, 그림장식, 색깔, 모양
순	『악서』·『문현통고』	용도
응	『악서』·『문현통고』	용도
조촉	편찬자 주(注)	용도, 재료, 제작법
방향	『악서』	재료, 제작법, 연주법
박	『문현통고』	재료, 제작법, 연주법, 용도, 편성
교방고	『문현통고』	용도
월금	『문현통고』	제작법, 용도 편성

장고	『문현통고』	재료, 제작법, 연주법, 조율법
당비파	『악서』·『문현통고』·『석명(釋名)』	재료, 제작법, 악기크기, 조율법
해금	『문현통고』	재료, 제작법, 연주법, 편성
대쟁	『문현통고』·『풍속통(風俗通)』	재료, 제작법
아쟁	『악서』	재료, 활제작법, 연주법, 편성
당적	『문현통고』, 『악서』	재료, 제작법
당·향피리	『악서』	재료, 제작법
통소	『석명』·『고려사(高麗史)』 왕자연(王子淵)의 『통소부(洞簫賦)』	재료, 제작법
태평소	.	재료, 제작법, 율법(律法), 편성
현금	『삼국사(三國史)』	재료, 제작법
향비파	『삼국사(三國史)』	재료, 제작법
가야금	『삼국사(三國史)』	재료, 제작법
대금	『삼국사(三國史)』	재료, 제작법, 연주법
소관자	.	재료, 기원,
초적	.	재료, 기원, 연주법

찬자가 직접 집필한 적(遂)과 조축(照燭)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옮겼으나, 차용(借用)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국조오례의서례』라는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편찬자의 주(注) 내용은 대개 악기의 재료와 제작법에 관한 기록이다.

즉, 『악학궤범』의 해설은 『국조오례의서례』 해설을 그대로 전사(全寫)하고, 추가로 내용을 집필한 것이다. 각 악기별로 『국조오례의서례』 해설과 일치하는 인용 문현의 목록과 『악학궤범』에 추가로 집필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4종의 악기 가운데 편경(編磬)·정(旌)·독(纛)·후(麾)·탁(鐸)·요(鐸)·탁(鐸)·아(雅)·상(相)·독(牘)·적(翟)·약(籥)·간(干)·척(鍼) 12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주(注)를 달지 않아 『국조오례의서례』의 내용과 일치하며, 토고(土鼓)의 경우는 『악학궤범』의 악기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비교하지 않았다.

『악학궤범』 악기도설의 해설에서 중국문헌을 인용한 부분이, 『악학궤범』 편찬자들에 수집·선별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악학궤범』은 『국조오례의서례』의 해설을 그대로 차용(借用)하고, 추가적으로 악기의 제작과 유지·보수에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들을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악학궤범』의 추가적 내용은 대체적으로 악기의 제작과 관련한 정보들 이지만, 각 악기들마다 내용과 분량에 차이가 있다. 『악학궤범』 편찬 당시에는 조선 전기의 아악 및 악기 제도 정비가 거의 완비된 시점이었으므로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반영되었으나, 내용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악기 '부(缶)'의 해설에는 당시 악기의 연주제도와 진양 『악서』에 기록된 연주제도가 상이(相異)한 점을 지적하며, 더 상고해봐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sup>49</sup> '훈(埙)'의 해설에도 악기의 체제가 정해진 것이 없고,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며, 일단 악기를 많이 만든 후에 소리가 나는 것을 골라 쓴다는 기록으로 보아,<sup>50</sup> 당시 악기에 대하여 개선 및 유지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 4. 『춘관통고』·『대한예전』

의례서인 『춘관통고』(1788)와 『대한예전』(1898)의 악기도설에 수록된 해설은 『국조오례의서례』를 그대로 전사(全寫)한 특징이 있다. 『춘관통고』의 경우에 '원의(原儀)'를 붙여,<sup>51</sup> 조선전기 의례서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49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부(缶). “…… ○按今軒架圖缶之數凡十每一各用一人擊之各准於律樂書有八缶具黃鍾一均之聲排列於床上則一人必專擊十二律趙王請秦王擊缶則其爲一人擊之明矣今之十缶各用一人擊之恐誤且黃鍾一均宜用七律而置八缶今之軒架圖宜用十二缶而用十缶亦未可知缶以瓦土燔造以厚薄定律”

50 『악학궤범』 아부악기도설 훈(埙). “…… ○按埙無定制以瓦土爲之闊狹失中或燔造生熟不同故聲音不齊必多數造之准於律管而用之”

밝히고 있고, 『대한예전』은 『국조오례의서례』의 내용에서 몇 악기를 제외한 것과 우(羽)와 간(干)의 이름을 각각 우약(羽籥)과 간적(干戚)으로 표기하는 등의 차이를 보일 뿐 해설의 내용은 모두 같다.

특히, 세 의례서는 내용도 같지만 각 악기도설에 악기를 수록하는 순서도 같은데, 현전하는 『대한예전』<sup>52</sup>은 순서가 달라서 이를 비교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와 『춘관통고』의 속부악기도설 악기의 수록순서는 '방향(方響)-교방고(敎坊鼓)-장고(杖鼓)-박(拍)-월금(月琴)-해금(奚琴)-현금(玄琴)-가야금(加耶琴)-당비파(唐琵琶)-향비파(鄉琵琶)-대쟁(大箏)-아쟁(牙箏)-당적(唐笛)-대금(大竽)-통소(洞簫)-당필률(唐觱篥)-향필률(鄉觱篥)-태평소(太平簫)'인데 비하여 『대한예전』의 속부악기도설 악기의 수록순서는 '방향(方響)-교방고(敎坊鼓)-장고(杖鼓)-가야금(加耶琴)-당비파(唐琵琶)-박(拍)-월금(月琴)-해금(奚琴)-현금(玄琴)-향비파(鄉琵琶)-대쟁(大箏)-아쟁(牙箏)-당적(唐笛)-대금(大竽)-통소(洞簫)-당필률(唐觱篥)-향필률(鄉觱篥)-태평소(太平簫)'로 나타났다. 이같은 서지(書誌) 배열로 인해 악기 해설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문제가 되는 조목은 『대한예전』의 현금(玄琴)조와 당비파(唐琵琶)조이다.<sup>53</sup>

---

51 위의 각주21) 참조.

52 掌禮院(朝鮮) 編, 『대한예전』寫本, 光武元年以後寫, 청구기호 K2-2123, MF35-427-4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으로 현재 마이크로필름(Microfilm)형태로 장서각 홈페이지에서 원문이미지로 제공되고 있다(<http://jsgimage.aks.ac.kr/jsgimage?view-Type=&qCond=tit&q=%EB%8C%80%ED%5%9C%EC%98%88%EC%A0%84>).

53 '현금(玄琴)조와 '당비파(唐琵琶)조 해설 뒷부분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한예전』의 속악기도설 수록 순서를 『국조오례의서례』 및 『춘관통고』와 같게 '현금(玄琴)-가야금(加耶琴)-당비파(唐琵琶)-향비파(鄉琵琶)' 순으로 배열하면, 각 악기의 해설이 바르게 된다. 장서각 소장 『대한예전』 사본(寫本)이 전해오는 과정에서 착간(錯簡)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인 특허청의 지식DB구축으로 운영되는 전통지식포털 ([www.koreantk.com](http://www.koreantk.com))에서 『대한예전』의 '현금(玄琴)' 및 '당비파(唐琵琶)'의 내용이 착간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문 및 번역 서비스 되고 있는 실정이다(현금(玄琴):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tc001535>, 당비파(唐琵琶): <http://www.koreantk.com/ktkp2014/craft/craft-view.view?craftCd=ktc01531>).

## 5. 『증보문현비고』

『증보문현비고』 「악고」에 총 62종의 악기들에 대한 해설이 있다. 해설의 기본구성은 일반해설과 만드는 법[造法], 연주법[擊法]이고, 일부 악기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악조(樂調)에 관련한 내용 또는 '보(補)'와 '속(續)'으로 표기된 내용이 있다. '보(補)'와 '속(續)'은 『증보문현비고』가 초판된 1770년 이후 1908년에 이르기까지 증보의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내용적으로 '보(補)'는 1770년 이전의 사건이고, '속(續)'은 1770년 이후의 일로 구분된다.

해설의 대부분은 인용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조오례의서례』와 『악학궤범』의 내용을 전부 차용(借用)하였다. 인용문을 그대로 전사(傳寫)하지 않고, 내용에 따라 일반해설·만드는 법·연주법 등의 조목(條目)으로 나누어 재구성한 특징이 있다. 해설의 출처는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건고(建鼓)·삭고(削鼓)·웅고(應鼓)·교방고(敎坊鼓)·장고(杖鼓) 등의 경우에 『국조오례의서례』와 중복된 내용의 출처를 『악학궤범』으로만 표기했고, 편종(編鐘)·특종(特鐘)·토고(土鼓)·순(錞) 등의 경우에는 『국조오례의서례』 인용문에 명시된 중국사료 『주례도』·『악서』·『문현통고』 등의 표기가 생략(省略)되었다.

『증보문현비고』의 특징은 직접 인용한 문현들이 대부분 한국문현이라는 점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조오례의서례』와 『악학궤범』을 차용(借用)했고, 『삼국사기』와 『실록』 등의 악기 관련 기사도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 이외 문현들을 발췌하여 집필한 부분은 총 7회 나타나는데, '편종(編鐘)·특종(特鐘)'과 '금(琴)' 조에 각각 『악기형지안(樂器形止案)』<sup>54</sup>에 나타난 홍섬(洪

54 '황희(黃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악원악기형지안(樂院樂器形止案)은 명 황제가 봉상시에 내려준 악기에 관련된 책을 수록한 것이다'(http://waks.aks.ac.kr/sh/shID=KS-2013-KD-240001)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형지안(形止案)').

暹, 1504-1585)의 글을 인용하였고, ‘태평소’의 해설에는 통소를 잘 불어 ‘대평소(大平簫)’라 하였다는 내용이나<sup>55</sup> ‘화·생·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생황 제작법을 배워 온 내용으로<sup>56</sup> 각각 『실록』기사를 인용하였다. ‘보(補)’와 속(續)’도 역시 『고려사』,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인용한 악기의 역사적 사건이나 『숙종실록』·『영조실록』의 악기 제작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영조 대에 동지사(冬至使) 전악 황세대(黃世大), 장문주(張文周), 신득린(申得麟)이 각각 중국에서 생황을 사온 일 등이 적혔는데, 본 사료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1871)에 나오는 내용이다.<sup>57</sup> ‘금(琴)’조에는 탁영금(濯纓琴)을 남긴 조선전기 문신(文臣) 김일손(金駟孫, 1464-1498)의 말을 인용하였고, ‘슬(瑟)’조에는 『삼국지(三國志)』, ‘대금(大琴)’조는 『삼국유사』를 인용해 만파식적(萬波息笛)<sup>58</sup>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유일하게 ‘당피리(唐鼙篥)’조에 중국 당나라 사람 왕창령(王昌齡)의 『시격(詩格)』을 인용하였다.

『증보문헌비고』 악기 해설의 구성과 인용문의 출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5 『태조실록』 권6, 1394년(태조 3) 10월 5일 신미(辛未). “辛未/西北面都節制使崔永沚, 執送挈家來投人一名, 善吹簫, 曰大平簫”

56 『영조실록』 권56, 1742년(영조 18) 8월 2일 무자(戊子). “樂院提調閔應洙曰:「壬辰以後, 樂器崩亡, 今之聲律, 壞盡無餘. 頃年樂工黃世大入去北京, 學得笙簧以來, 今番使行亦令入送, 學來宜矣.」”

57 숙종 임술년(1682, 숙종8)에 동지사(冬至使)인 전악 황세대(黃世大)가 생황(笙簧)을 사고 음률을 배워 왔다. 을유년(1705, 숙종31)에는 동지사인 전악 장문주(張文周)가 당금(唐琴)과 생황을 사고 음률을 배워 왔다. 경인년(1710, 숙종36)에는 동지사인 전악 신득린(申得麟)이 생황과 관(管)을 사 가지고 왔다(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권20,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전악(典樂)’).

58 『삼국유사(三國遺事)』 1권 기이(紀異) 제2 ‘만파식적(萬波息笛)’.

표6-『증보문헌비고』 악기 해설의 구성과 출처

	악기	일반 해설					조법(造法)		격법(擊法)		기타 <sup>59</sup>
		삼국 사기	실록	국조 오례의 서례	악학 궤범	주(注) <sup>60</sup>	악학 궤범	주(注)	악학 궤범	주(注)	
·	종론(總論)										●보
1	편종·특종		○	○		●	○		○		
2	경		○	○	○			●			
3	건고				○		○				
4	삭고				○						
5	응고				○						
6	뇌고		○	○	○						
7	뇌도				○	○					
8	토고		○	○							
9	절고				○	○					
10	진고		○	○	○						
11	죽·지		○	○	○						
12	어·진		○	○	○						
13	관		○	○			○		○	●	
14	약			○			○				
15	화·생·우		○	○		●	○				
16	소			○			○				
17	적			○			○				
18	부		○	○			○				
19	훈		○	○			○				
20	지			○			○				
21	슬			○			○		○	●보	
22	금			○		●	○		○	●보	
23	순			○							
24	탁			○							
25	요			○							
26	탁			○							
27	응			○							
28	아			○							
29	상			○							
30	독		○	○							
31	부		○								
32	거·순·승·수		○	○							

33	방향		○	○	○	●	○			
34	교방고			○						
35	월금		○			○				
36	장고			○		○				
37	당·향비파	○		○			○	○		○약조
38	해금			○			○	○		
39	대쟁·아쟁			○			○			
40	당적			○			○			
41	당·향피리			○			○			●보
42	통소			○			○			
43	태평소			○	●	○				
44	현금	○				○		○		○약조
45	가야금	○				○		○		
46	대금	○		○			○	○		●보
47	향발				○의물					
48	동발				○의물					
49	대고·소고				○의물					
.										●속

한편, 『증보문현비고』에 인용된 『악학궤범』이 임진란(壬辰亂) 후판(後板)이라는 점이 ‘방향(方響)’조의 해설에서 드러난다. 『악학궤범』은 1493년에 초간(初刊)된 이후 3번 복간(復刊)이 있었고,<sup>59</sup> 내용적으로는 임진란(壬辰亂)

59 『증보문현비고』는 1769년에 왕명으로 시작되어 반년 여 만인 1770년 8월에 인쇄되었는데, 소략과 착오로 인해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재편찬에 들어갔다. 당시 박학 강기(博學強記)로 이름난 이만운(李萬運)을 기용해 진행된 사업은 1790년에 일단락되었으나 그 후에도 계속 보완·증보의 작업이 이어져 최종 1908년에 완성되었다. ‘보(補)’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영조46년(1770)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고, ‘속(續)’자의 표식은 영조46년(1770) 이후의 사실 보충하여 쓴 것인데, 광무(光武) 연간의 개찬(改撰)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정구복, 『『문현비고』의 자료적 성격과 사학사적 의미』, 『진단학보』 제106집(2008), 167-190쪽)

60 『증보문현비고』의 편집자에 의해 새로 집필된 내용을 의미한다. 이 ‘주(注)’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해설에 5회, 만드는 법에 1회, 연주법에 1회에 불과하다.

61 『악학궤범』은 1493년에 초간(初刊),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 이후인 1610년(광해군 2)에 재간(再刊),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이후인 1655년(효종 6)에 삼간(三刊), 1743년(영조 19) 네 번째로 복간(復刊)되었다.

전판(前板)과 후판(後板)으로 나뉜다. 『악학궤범』 두 판본(板本)의 내용적인 차이가 지엽적(枝葉的)에 불과하더라도<sup>62</sup> 조선시대의 악기도설이 편찬 시기 순서에 따라 참고 및 증보(增補)되어 가는 과정에 편차(偏差)가 생기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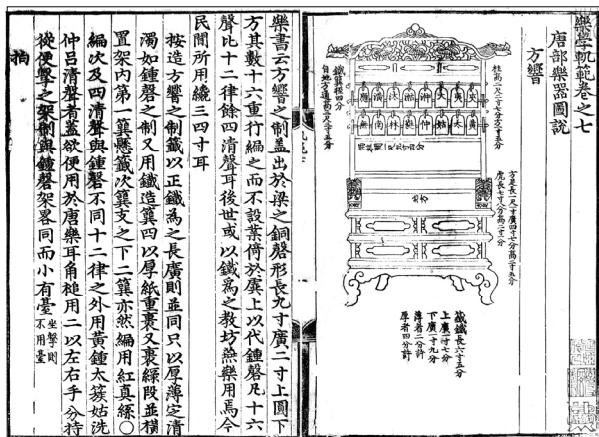


그림2-1: 임란전판, 호사문고본 『악학궤범』 방향(方響)

樂書云方響之制蓋出於梁之銅磬形長九寸廣二寸上圖其數十六重竹編之而不設業倚於虞上以代鍾磬凡十六聲比十二律餘四清聲耳後世或以鐵爲之教坊燕樂用焉今民間所用纔三四十耳 ○按造方響之制鍾以正鐵爲之長廣則竝同只以厚薄定清濁如鍾磬之制又用鐵造簾四以厚紙重裹又裹綠段並橫置架內第一簾次簾支之下二簾亦然編用紅真絲 ○編次及四清聲與鍾磬不同十二律之外用黃鍾太簇姑洗仲呂清聲者蓋欲便用於唐樂耳角蕤用二以左右手分持從便擊之架制與鍾磬架略同而小有臺[坐擊則不用臺]

62 임진란 전판(前板)을 저본으로 펴낸 『신역악학궤범』의 「해제(解題)」에 임진란(壬辰亂) 전·후판의 내용 차이를 도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당부악기도설의 방향(方響)에 대해서는 악기 그림에 나타난 율명(律名)에 대한 차이와 해설에서 인용된 『악서』와 『문현 통고』의 차이만 간략히 언급하였다. 「임진란전판」과 「광해2년판」를 대략적으로 비교, 도표화 하였다. 권6·7의 「악기도설」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해구 역주, 『신역악학궤범』(국립국악원, 2000), 16-7쪽).

권·장·면·행	임진전판	광해2년판
권7.1a 방향 그림 중	應潢汰漱浹大夷夾無南林蕤仲姑太黃	夷潢汰漱浹汰浹淋 無南林蕤仲夾太黃
권7.1b1	樂書云	文獻通考云
권7.2a11	垂色絲結子○初擊以起樂仍	結纓纓端五色真絲每緝結之
권7.3a11	柱豪琴之微轉絃	而豪琴之類調絃
권7.8a 해금 그림 중	筒長四寸四分	四寸四分
권7.14a 〈玄琴〉柱	三箇同	三箇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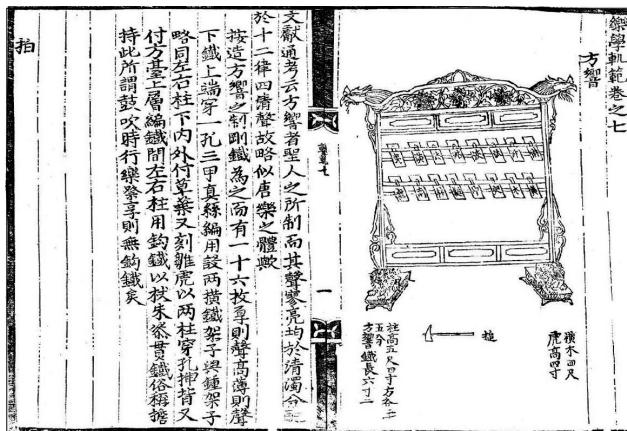


그림3-임란후판, 영조판 『악학궤범』 방향(方響)<sup>64</sup>

文獻通考云方響者聖人之所制而其聲寥亮均於清濁合於十二律四清聲故略似唐樂之體歟 ○按造方響之制剛鐵爲之而有一十六枚厚則聲高薄則聲下鐵上端穿一孔三甲真絲編用設兩橫鐵架子與鍾架子略同左右柱下內外付草葉又刻難虎以兩柱穿孔插背又付方臺上層編鐵間左右柱用鉤鐵以杖朱漆貫鐵俗稱擔持此所謂鼓吹時行樂祭享則無鉤鐵矣

기에 중요한 사안이다. 『악학궤범』 임진란 전판과 후판에 실린 ‘방향(方響)’ 조의 해설을 비교하면 그림2, 그림3과 같다.

임진전판 『악학궤범』의 해설은 『악서』를 인용한 『국조오례의서례』의 해설을 그대로 전사(全寫)한 반면, 임진후판의 해설은 중국문헌인 『문현통고』를 인용해 기술되었다. 본고에서는 두 판본(板本)에 나타난 방향(方響) 조 해설의 자세한 비교는 생략하기로 한다.<sup>63</sup> 다만, 이를 통해 『증보문현비고』에 인용된 내용이 임진후판(壬辰後板)의 『악학궤범』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증보문현비고』는 『악학궤범』의 방향(方響) 조 내용 전체를 인용하고 있는데, 단,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일반해설과 악기 만드는 법[造法]의 조목으로

63 임진란 전판(s前板)과 후판(s後板)에 나타난 ‘방향(方響)’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화순의 『한국 방향의 구성 음과 편차의 변천에 관하여』, 『국악원논문집』 제26집(국립국악원, 2012), 325-355쪽 참조.

<p>方響 世宗十三年慎習都監使朴壞上言曰方響一器起自梁朝上下通用以代鐘磬之音者也八音之中惟磬磬四時不變而方響亦然其餘中虛鑄穴一設則體薄而空易感陰陽之氣故盛夏則乾燥而響高隆冬則凝滯而聲下必依磬聲而調之然後音始諧和詩所謂我磬聲者以此磬聲之外惟方響可據誠切要然我方響只有三部而其聲過半不得其正為可恨也又考外行樂之器天子之制用方響八架在坐皆半其制而為之且方響嚴之座內樂工未易私習乞令加造以無私習之器下詳定所議</p>
<p>五禮儀圖說曰樂書云方響之制蓋由於樂之銅磬形長九寸廣二寸半圓下方其數十六重行編之不設架篤於譙上以代鐘磬凡十六磬比十二律餘四清磬耳後世或以鐵為之教坊燕樂用焉今民間所用鐵三四寸耳</p>
<p>樂事略箇曰文獻通考云方響者聖人之所制而其聲寥亮均於清濁分麗於一律四清聲故俗謂之鐘磬</p>
<p>四譜接軸此條不見於通考可見也已大抵通考有「方響而載胡部一載俗部安有稱聖人之所制而載之胡部者哉且所謂略似唐樂之體者尤不曉恐是簡也」</p>
<p>造法 方響之制剛鐵爲之而有二十枚厚則聲高薄則聲下鐵上端穿孔三甲真絲編用設兩橫鐵架子與鐘架子略同左右柱下內外付草葉又刻離虎以兩柱穿孔背又付方臺上層編鐵間左右柱用鈎鐵以朱漆貫鐵俗稱撥指此所謂鼓吹時行樂祭享則無鉤鐵矣</p>

#### 그림4-『증보문헌비고』 악고(樂考) 7 금지속(金之屬) 속부(俗部) 방향(方響)

樂學軌範曰 文獻通考云方響者聖人之所制而其聲寥亮，均於清濁，分配於十二律四清聲，故略似唐樂之體歟 ○造法按造方響之制剛鐵爲之而有一十六枚厚則聲高薄則聲下鐵上端穿孔三甲真絲編用設兩橫鐵架子與鐘架子略同左右柱下內外付草葉又刻離虎以兩柱穿孔背又付方臺上層編鐵間左右柱用鈎鐵以朱漆貫鐵俗稱撥指此所謂鼓吹時行樂祭享則無鉤鐵矣

재구성하였다.

이상 6종의 조선시대 악기도설의 해설 구성 및 내용을 비교·고찰하여 각 문헌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세종실록·오례』가 최초 아악기 해설을 집필하였고, 이를 기초로 『국조오례의서례』에서 아악기 및 속악기의 해설을 완성하였다. 『악학궤범』은 『국조오례의서례』의 해설을 전사(全寫)하였고, 악기 만드는 법 및 연주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의례서인 『춘관통고』와 『대한예전』은 『국조오례의서례』의 해설을 그대로 전용(全用)하였다. 『증보문헌비고』는 『국조오례의서례』와 『악학궤범』의 해설을 전부 사용되어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였고, 『삼국사기』와 『실록』 등 한국문헌으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악기의 해설은 초기에 중국문헌 인용문에 의존해 집필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실용적인 악기 정보와 한국문헌 인용 등으로 증보(增補)되어 가는 과정을 보인다.

64 성현, 『악학궤범』(1493), 권7.1b, 「당부악기도설」(『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6집: 영조 판 악학궤범』(국립국악원[영인], 1988), 172쪽).

조선시대 문헌에 보이는 악기 해설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7-조선시대 문헌의 악기 해설 관계도

	세종실록· 오례 (1451)	국조오례의·서례 (1474)	악학궤범 (1493)	춘관통고 (1788)	대한예전 (1898)	증보문헌비고 (1770-1908)
관계	중국문헌 인용	『세종실록·오례』 의 증보(增補)	『국조오례의 서례』의 전사 (全寫)	『국조오례의 서례』의 전사 (全寫)	『국조오례의 서례』의 전사(全寫)	『악학궤범』 <sup>65</sup> 의 재구성
			내용 추가			내용 추가
특징	이악기	이악기/속악기	아악기/당악기/ 향악기(악기재료, 제작법, 연주법 등)		9종 악기 <sup>66</sup> 제외.	팔음(아부/속 부) 분류, 제작 법, 연주법, 역 사적 사건 등

정리하면, 악기도설은 세종오례에서 정리, 국조오례의서례를 거쳐 악학궤범에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춘관통고, 대한예전은 국조오례의서례를 반복 수록하였고, 증보문고는 이를 부연한 것이다.

#### IV. 악기 그림[圖]의 특징

본고에서 다루는 문헌 중 악기 도상이 실린 것은 『세종실록·오례』·『국조오례의서례』·『악학궤범』·『춘관통고』·『대한예전』의 5종이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악기의 그림이 없다. 앞서 악기 해설을 통해 본 각 문헌들의

<sup>65</sup> 『증보문헌비고』에 참고된 『악학궤범』은 임진란 후판에 해당된다. 특히 방향(方響)조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본문 III. 5. 『증보문헌비고』 참조.

<sup>66</sup> 토고(土鼓) 및 순(筩)·탁(鐸)·요(鎚)·탁(鐸)·옹(應)·아(雅)·상(相)·독(牘)에 해당한다.

관계에 따라, 악기의 그림도 초기 중국문현『주례도』와『악서』 및 조선조 악기도설의 편찬 시기 순서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문현을 인용(引用)하거나 필사(筆寫)할 때에 문자(文子)는 서체(書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반면, 그림은 화법(畫法)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만으로 악기의 실제(實際)를 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악기도설에 나타난 악기 도상만으로는 실제 악기의 크기와 모양, 악기 본체와 장식, 받침 등의 비율에 대한 문제, 현(絃)의 수, 꽈(棵), 지공(指孔)의 유무 등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더욱이 악기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림에 나타나지 않는 후면(後面)에 대해서도 자세한 표기가 없거나, 글로서 언급되지 않으면 해아리기 어렵다. 도록(圖錄)에 나타난 악기를 보고 모사(模寫)한 경우에는 화자(畫者)에 의해 2차, 3차 각색(脚色)이 일어날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행히 궁중에서 사용된 악기들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도상에 나타나는 차이들이 실제적으로 악기의 제도에 관한 것인지 단지 화법에 따른 차이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악기도상의 민감한 논의를 피하고, 각 악기도설에서 나타난 악기의 그림의 특징을 검토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각 문현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조 및 형태의 변화

악기의 그림을 통해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악기의 구조 및 형태의 변화이다. 이는 악기의 제도(制度)와도 관계 된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악기들이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데 비해, 몇몇 악기들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림을 통해 확연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악기로는 놀고(雷鼓)·놀도(雷鼗), 편종(編

鐘·편경(編磬), 진고(晉鼓), 가야금(伽倻琴) 등을 들 수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뇌고(雷鼓)·뇌도(雷鼗)

『세종실록·오례』의 뇌고(雷鼓)·뇌도(雷鼗)는 8면(面)의 북이고, 『국조오례의서례』에는 6면(面)의 북으로 나타난다. 북 면수(面數)의 차이 뿐 아니라 악기의 모양도 다르다. 이같은 악기의 구조와 형태의 변화는 중국문헌인 『주례도』와 『진양·악서』에서 각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도설에 나타난 뇌고(雷鼓)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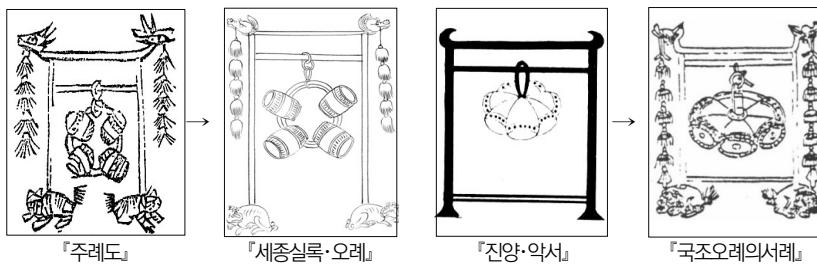


그림5-중국 및 한국 문헌 악기도설의 뇌고(雷鼓) 비교

각 도설의 뇌고(雷鼓)그림을 통해 나타나는 큰 특징은 악기의 제도 면에서 『세종실록·오례』는 『주례도』와 같고 『국조오례의서례』는 『진양·악서』와 같은 점이다. 『세종실록·오례』의 뇌고는 2면(面)의 작은 북 4개를 큰 코리로 퀘어 매달아 놓은 모습으로 8면(面)을 가진데 비해 『국조오례의서례』의 뇌고는 1면(面)의 작은 북 6개가 팔방(八方)으로 매달린 형태로 북 면의 수뿐만 아니라 북이 퀘인 형상도 다르다. 조선 전기 악학자(樂學者)들은 뇌고의 북 면수에 대하여 중국문헌을 해석하는데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sup>67</sup>

『국조오례의서례』에 나타난 결과는 『악서』의 악기 체제를 따른 것이다. 아울러 『악서』의 악기 해설에는 1면(面)북을 사용한다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 더욱이 조선 전기 악기의 제도가 개정(改定)되었음을 뒷받침한다.

한편, 『국조오례의서례』의 놀고가 비록 제도는 『악서』를 따랐지만, 악기(樂器)의 가자(架子) 상단의 용(龍)장식과 늘어뜨린 유소(流蘇), 동물의 모양의 받침 등은 『세종실록·오례』에 나타난 체제와 같다. 이후에 편찬된 『악학궤범』·『춘관통고』·『대한예전』에는 『국조오례의서례』의 놀고(雷鼓)와 같은 구조와 형태로 6면(面)의 북이 나타난다. 놀고(雷鼓)·뇌도(雷鼗) 외에도 『주례도』와 『악서』에 따른 제도적 차이를 보이는 악기는 영고(靈鼓)·영도(靈鼗)·노고(路鼓)·노도(路鼗) 등이 있다.

## 2) 편종(編鐘)·편경(編磬)

『세종실록·오례』의 편종(編鐘)·편경(編磬)은 12매이고, 『국조오례의서례』에는 16매로 나타난다. 고려 및 조선 초기에 중국에서 들여온 편종·편경은 모두 16매짜리였고,<sup>67</sup> 중국문헌 『주례도』의 그림에도 16매의 편종·편경이 나타나는데, 조선 초기 박연에 의해 제작된 편경과 편종이 12매였음이 확인된다.<sup>68</sup> 이는 세종 초 '2변(變)과 4청성이 교화와 도(道)에 해롭다'며

67 『세종실록』 권47, 1430년(세종 12) 2월 19일 경인(庚寅). 『周禮』註引鄭司農云: '雷鼓六面.' 與陳氏同. 又引鄭康成云: '雷鼓八面, 靈鼓六面.' 今奉常寺序列圖[序例圖], 不考陳氏之說, 只據康成之言爲圖, 故此二鼓易換. 願依陳氏之說改之.'

68 『고려사』 권70 志24/樂/雅樂/현가악독주절도(軒架樂獨奏節度) 공민왕(恭愍王). "十九年五月, 成准得, 還自京師, 太祖皇帝, 賦樂器, 編鐘十六架全·編磬十六架全. 鐘架全, 磬架全, 筏簫琴瑟排簫一"; 『태종실록』 권12, 1406년(태종 6) 윤7월 13일 경오(庚午). "先該朝鮮國王容:「本國宗廟社稷樂器損舊, 寮稟奏達, 如蒙允許, 隨後差人, 齋價赴京收買, 以備應用.」移咨到部. 查得, 本國樂器, 洪武年間, 太祖皇帝曾經頒賜, 今稱損舊, 民間別無造賣, 難準所行. 永樂三年六月初八日早, 本部官具奏, 節該奉聖旨:「樂器與他.」欽此, 已經欽遵, 移咨工部, 成造去後, 今準造完, 覆奏移咨, 差內史朴麟等, 齋奉同將樂器, 管送前去, 合行本國知會, 照數收用. 計發去祭祀樂器, 編鐘一十六箇, 編磬一十六片, 琴四張, 瑟二床, 笙二擣, 簫四管."

69 『세종실록』 권36, 1427년(세종 9) 5월 15일 임인(壬寅). "○樂學別坐奉常判官朴堧, 進新

5성 12을 주장하는 진양 설을 따랐기 때문이다.<sup>70</sup> 그러나 1430년(세종 12) 8월 박연이 새로 만든 편종과 편경의 4청성을 검열한 사실이 확인되며,<sup>71</sup> 이후 편종과 편경은 다시 12을 4청성의 16매짜리로 만들어졌다. 이후에 편찬된 『악학궤범』·『춘관통고』·『대한예전』의 악기도설에도 『국조오례의 서례』와 같은 16매의 편종·편경이 나타난다. 각 도설에 나타난 편종(編鐘)의 그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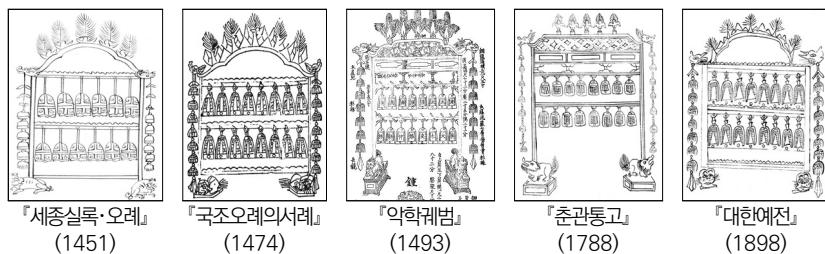


그림6-한국 문헌 악기도설의 편종(編鐘)

### 3) 진고(晉鼓)

조선시대 악기도설에 나타난 진고(晉鼓)의 구조와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진고는 『세종실록·오례』에는 나오지 않았고, 『국조오례의서례』에 처음 소개되었으며,<sup>72</sup> 『악학궤범』·『춘관통고』·『대한예전』에도 나타난다. 두 가지 형태는 『국조오례의서례』와 『악학궤범』의 그림으로 대비된다.

製石磬一架十二枚. 初以中朝黃鍾之磬爲主, 三分損益, 作十二律管, 兼以瓮津所產秬黍校正之, 取南陽石作之, 聲律乃諧, 遂作宗廟朝會之樂.”

70 김종수, 「세종대 아악 정비와 진양의『악서』」,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문화사적 고찰』 (민속원, 2018), 74~75쪽.

71 『세종실록』 권49, 1430년(세종 12) 8월 18일 병술(丙戌). “○御思政殿, 閑雅樂及四清聲, 朴埂新造鍾磬也.”

72 진고(晉鼓)는 『세종실록·오례』 악기도설에는 나오지 않고, 조선 전기에 사직(社稷)과 종묘(宗廟), 풍운뇌우(風雲雷雨) 악현에 배치되면서 『국조오례의서례』 악기도설에 처음으로 소개 되었다(본문의 각주 14) 참조).

『국조오례의서례』에 나타난 진고의 모양은 받침대 위에 세워진 기둥이 북[鼓]를 꿰뚫고, 북위로는 횡순(橫筍)이 있다. 이는 『국조오례의서례』 진고(晉鼓)조 해설에 나타난 『문헌통고(文獻通考)』 인용문의 내용<sup>73</sup>과 같은 형상이다. 받침과 기둥, 횡순의 모양, 기둥에 관통하여 고정시켜 놓은 북의 형상은 『악서』에 실린 진고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단, 기둥의 받침이 호랑이 4마리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선시대 아부악기 중 건고·삭고·응고·뇌고·영고·노고·방향의 종기(鐘簴)와 같은 형식이다.<sup>74</sup>

반면, 『악학궤범』의 진고(晉鼓)는 『국조오례의서례』의 악기와 전혀 다른 구조와 형태를 보인다. 『악학궤범』의 ‘진고(晉鼓)’조에는 ‘네 기둥의 가로목[橫木]위에 북을 올려놓는다’고 하였고, 설명과 같은 체제의 악기 그림이 그려졌다. 이와 같은 연유는 『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1430년(세종 12)과 1441년(세종 23)에 각각 진고(晉鼓)를 복원할 것에 대한 상소가 있었는데, 기사에 의하면 당시 조선에서는 진고(晉鼓)로서 ‘대고(大鼓)’를 사용하고 있었다.<sup>75</sup> 이 ‘대고(大鼓)’에 대해서는 『악학궤범』의 교방고(教坊鼓) 설명에 이르기를 ‘대고(大鼓)의 체제(體制)와 같다’<sup>76</sup>고 한 것에서, 대고(大鼓)가 교방고(教坊鼓)의 체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에 나타난 교방고는 네 개의 가로목[橫木] 위에 북을 올려놓은 형상인데, 북면(鼓面)이 상하(上下)

73 『국조오례의서례』 아부악기도설 진고(晉鼓). “文獻通考云晉鼓其制大以短蓋所以鼓金奏也鐘師以鐘鼓奏九夏轉師掌金奏之鼓豈晉鼓歟注云以木柱貫鼓下爲趺上爲橫筍”

74 세종실록 권49, 1430년(세종 12) 7월 29일 정묘. “……奉常少尹朴堧議: 『『大晟樂譜』鍾虞之論, 雖曰蛙鼙之屬, 至於圖則以虎畫之. 又『陳氏樂書』內, 雅部鍾虞之飾, 以虎畫之, 俗部鍾虞之飾, 則以獅畫之. 朝會樂器, 非若祭樂例, 一依『陳氏樂書』.』從堧議.”

75 『세종실록』 권47, 1430년(세종 12) 2월 19일 경인(庚寅). “…… 今之所用大鼓, 宋人以爲散鼓, 其後代以晉鼓, 乞依宋制用晉鼓一”; 『세종실록』 권92, 1441년(세종 23) 1월 6일 갑진(甲辰). “…… 按此則樂用晉鼓, 古制明矣. 但歷代宮懸, 皆用四散鼓, 設於宮懸四隅, 以節其樂, 至宋始復古制, 用晉鼓節樂, 則懸晉鼓之數, 恐亦用四, 諸侯軒架, 當減其數, 然無左驗之文. 我國祭樂內節樂之鼓, 前此只用一大鼓, 此必散鼓晉鼓之遺法也.”

76 『악학궤범』 당부악기도설 교방고. “文獻通考云其體制如大鼓蟠龍匝轄有架有趺[今教坊所用鼓制如此] ○按教坊鼓隨樂節與杖鼓之鼓聲同擊之[一舞鼓呈才用之行樂鼓同而差小]”

로 향한다. 이에 비해 『악학궤범』에 나타난 ‘진고(晉鼓)’는 북면(鼓面)이 좌우(左右)를 향한 것이 다를 뿐, 체제가 교방고와 일치한다. 『악학궤범』에 그려진 ‘진고(晉鼓)’는 『실록』의 내용과 같이 당시에 진고(晉鼓)로서 사용하고 있는 ‘대고(大鼓)’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국조오례의서례』와 『악학궤범』에 나타난 각기 다른 모양의 진고는 이후에 편찬된 악기도설에서도 각기 나타나는데, 『춘관통고』는 『악학궤범』과 같은 체제의 진고 그림을, 『대한예전』은 『국조오례의서례』와 같은 체제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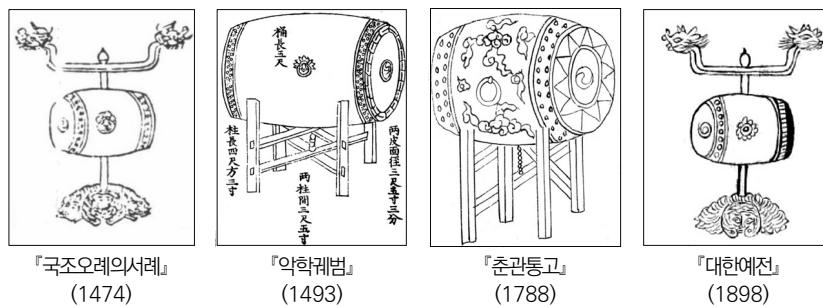


그림7-한국 문헌 악기도설의 진고

#### 4) 가야금(伽倻琴)

조선시대 악기도설에 나타난 가야금의 구조 및 형태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양이두(羊耳頭)의 유무(有無)라 할 수 있다. 양이두(羊耳頭)의 명칭이 처음 기록된 것은 『악학궤범』인데 이름과 같이 양(羊)의 귀[耳] 형상을 하며, 부들을 끌어 가야금의 현(絃)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양이두’에 해당하는 부품은 고대 가야금 유물이나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쇼소인(正倉院)에 수장된 시라기고토(新羅琴)에도 나타나는데 끝이 아래로 둥글게 굽어있는 형태로 『세종실록·오례』의 것과 흡사하다. 이에

비해 『악학궤범』과 『춘관통고』의 양이두 부분은 양의 뿔처럼 끝이 위로 뾰족하게 그려져 있다. 즉, ‘양이두’라는 부품은 고대로부터 존재한 가야금의 독특한 부품이라 할 수 있는데, 『악학궤범』 이후 명칭과 모양이 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77</sup> 또한, 『악학궤범』의 가야금 전면(前面)에 ‘담수(淡水)’라는 구멍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가 『세종실록·오례』에도 나타나며, 현(絃)의 수도 정확히 12현을 그리고 있어 이 두 악기가 같은 악기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현행의 정악가야금과 같은 형태이다.

반면, 『국조오례의서례』에 나타난 가야금은 양이두(羊耳頭)가 없다. 악기 그림으로 후면을 알 수 없으나 악기의 양쪽 끝으로 구멍을 내어 현(絃)을 고정시킨 것이, 봉미(鳳尾)부분에 구멍을 뚫어 현(絃)을 고정시키는 현행 산조가야금과 같은 형태라 할 수 있다. 현행 산조가야금은 일반적으로 19세기 말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선시대 악기도설에 이와 같은 구조와 형태를 가진 가야금이 실려 있어 이를 두고, 현행 산조가야금의 발생을 15세기로 소급(遡及)하기도 한다.<sup>78</sup> 현행 산조가야금과 같은 형태의 악기가 ‘산조’라는 음악의 장르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각 도설에 나타난 가야금(伽倻琴)의 그림은 다음과 같다.

77 ‘양이두’에 대하여, 김영운은 ‘양이두’가 오히려 소[牛]나 물소[犀]의 뿔[角]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유목민족이나 또는 동남아시아의 농경민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고, 이용식은 가야금이 인도로부터 동남아시아와 남중국의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남방불교와 더불어 유입된 악기로서 물고기를 신성시하는 불교 계통의 ‘쌍어문(雙魚紋)’ 장식이라고 추측하였다(김영운, 「가야금의 유래와 구조」, 『국악원논문집』 제9집 (1997), 30쪽; 이용식, 「악기 장식 동물 문양의 상징성: 가야금을 중심으로」, 『한국음악학보』 제61집(2018), 202~205쪽).

78 김영운(1997), 앞의 논문, 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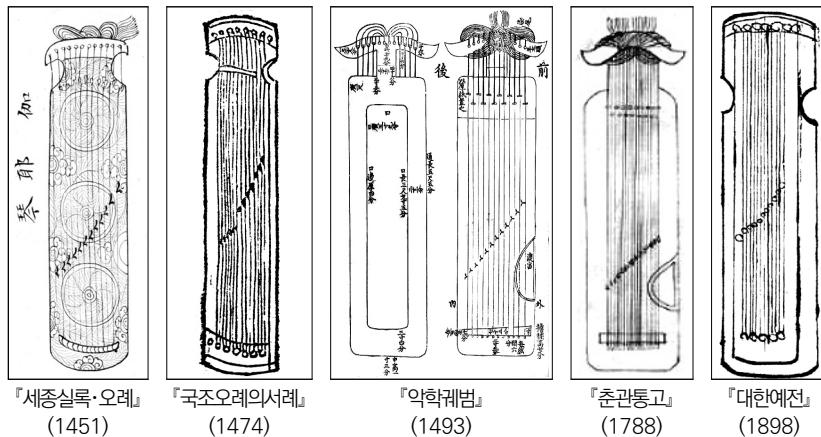


그림8-한국 문헌 악기도설의 가야금(伽倻琴)

즉, 악기도설에 나타난 가야금은 ‘양이두(羊耳頭)’부품의 유무(有無)로 대비된다. 그 가운데 양이두의 모양이 『세종실록·오례』의 아래로 둑근 형태에서 『악학궤범』의 위로 뾰족하게 올라간 형태로 변화하였고, 양이두가 나타나지 않은 가야금은 현행 산조가야금과 같은 형식으로 여겨진다.

## 2. 화법(畫法)상의 특징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기의 구조와 형태가 크게 변화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선 궁중에서 사용된 악기들 대부분은 조선 전반에 걸쳐 악기의 외형이 비슷하게 유지된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오례』 악기도설에 나타난 악기의 그림과 조선 말기 『대한예전』의 악기 대부분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악기의 그림은 악기도설 편찬의 순서에 따라 『세종실록·오례』가 『국조 오례의서례』에 영향을 주고, 『악학궤범』·『춘관통고』·『대한예전』까지 이

전 문헌들이 이후의 문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같은 악기에 대하여 각 악기도설마다 악기의 크기나 장식의 개수, 문양 등에 차이가 있어, 어디까지를 같게 또는 다르게 여겨야 하는지 악기의 도상(圖上)연구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각 악기도설에 나타난 그림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실록·오례』는 조선시대 최초로 악기를 도설(圖說)형식으로 도입하였고, 악기 그림의 체제는 중국문헌 『주례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국조오례의서례』는 『세종실록·오례』를 기초로 편찬하여 해설 및 그림에서도 흡사한 면이 많이 나타난다. 『악학궤범』은 시기적으로 『국조오례의서례』 다음으로 편찬되어, 해설을 전부 차용하고 있음에도 악기의 그림은 독자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어떤 악기도설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후 편찬된 『춘관통고』와 『대한예전』은 조선후기 의례서로서 악기도설의 수록 내용은 전기 의례서인 『국조오례의서례』를 모두 따랐는데, 악기의 그림에 있어 『춘관통고』는 『악학궤범』을, 『대한예전』은 『국조오례의서례』를 따른 차이가 있다.

특히, 『대한예전』(1898)의 악기 그림은 『국조오례의서례』의 도록을 그 자체로 모사(模寫)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전체적인 외형 및 구도까지 그대로 옮기려고 했음이 나타난다. 『국조오례의서례』와 『대한예전』 편종(그림6 참조)을 비교하면 두 악기의 전체적인 외형이 매우 닮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종거(鐘簴) 받침으로 호랑이[虎], 또는 용두(龍頭), 목공작(木孔雀), 유소(流蘇) 등의 구성이 같다. 그런데, 『대한예전』의 편종 그림을 자세히 살피면 가자(架子) 장식인 목공작(木孔雀)이 새의 형상이 아니라 마치 나뭇가지 장식으로 묘사되었고, 악기받침의 동물 형상도 매우 소략히 그려져 있다. 『대한예전』의 악기 그림만 가지고는, 그림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본래 악기도설에서 그림[圖]의 역할은 문자(文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악기의 형상을 보다 쉽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수단인데, 『대한예전』에서는 형식적으로 기존 문헌의 편찬체제와 수록내용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악기 그림의 순기능이 퇴색되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5종의 조선시대 악기도설의 그림을 비교·검토하여 악기의 구조 및 형태의 변화와 각 도설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았다. 각 악기도설은 당대의 악기 또는 제도를 반영한 그림으로 조선시대 악기의 변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몇 악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악기들이 조선 전반동안 같은 외형을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나, 같은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각 악기도설에 나타나는 화법(畫法)상의 차이로 인해, 하나의 그림으로는 악기 본연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이 확인되었다.

각 악기도설에 나타난 악기 그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종실록·오례』의 그림이 중국문헌 『주례도』에 영향을 받아 도록화 되었고, 『국조오례의·서례』는 『세종실록·오례』를 기초로 편찬하되, 『악서』의 제도(制度)가 반영된 그림이 나타났다. 『악학궤범』은 독자적인 그림을 남겼는데, 조선시대에 편찬된 다른 도설보다 자세하고 악기제작을 위한 도면(圖面) 기능의 특징이 있다. 대체적으로 『춘관통고』는 『악학궤범』을, 『대한예전』은 『국조오례의 서례』의 그림을 따랐다.

조선시대 악기도설 문헌의 악기 그림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8-조선시대 악기도설류 문헌의 악기 그림 관계도**

관계	세종실록·오례 (1451)	국조오례의·서례 (1474)	악학궤범 (1493)	춘관통고 (1788)	대한예전 (1898)
	『주례도』 그림 참조	『세종실록·오례』 그림 참조	독자적 그림	『악학궤범』 그림 참조	『국조오례의서례』 그림 참조
특징		『악서』의 악기 제도 영향을 받음	도면(圖面) 성격의 자세한 그림		

## V. 맷음말

---

본고는 조선시대 관찬서(官撰書) 『세종실록·오례』(1451)·『국조오례의서례』(1474)·『악학궤범』(1493)·『춘관통고』(1788)·『대한예전』(1898)·『증보문현비고』(1770-1908)에 나타난 악기도설(樂器圖說)를 편찬시기 순으로 악기의 종류, 해설, 도상(圖像) 등의 수록 내용 및 구성에 대하여 전·후 문현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고찰하였으며 각 문현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첫째, 문현의 성격에 따른 악기도설 조목의 구성에 차이로 의례서와 악서는 악현에 배치된 악기 및 의물, 무구, 제도를 모두 악기(樂器)로 통괄한 반면, 유서류는 음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樂器)’를 구별하였다. 시기적으로도 의례서와 악서는 문현의 편찬시기 당대 의례를 반영하였으나, 유서류의 경우는 조선전반을 아울렸다.

둘째, 『세종실록·오례』에 최초로 아악기 해설이 집필되었고, 이를 기초로 『국조오례의서례』에서 아악기 및 속악기의 해설이 완성되었다. 『악학궤범』은 『국조오례의서례』 해설에 악기 만드는 법 및 연주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춘관통고』·『대한예전』의 경우는 『국조오례의서례』 해설을 전사(全寫)하였다. 『증보문현비고』는 『국조오례의서례』와 『악학궤범』의 내용을 전용(全用)하고, 다양한 한국문현들을 인용해 해설을 추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악기의 해설은 초기 중국문현 인용문에 의존한 집필에서 후기로 갈수록 실용적인 정보와 한국문현 인용으로 증보(增補)되었다. 특히, 해설 비교 과정에서 현전 『대한예전』의 착간(錯簡)으로 생긴 악기해설을 정정하였고, 『증보문현비고』가 인용한 『악학궤범』이 임진란(壬辰亂) 후판본(後板本)인 점을 밝혔다.

셋째, 악기도설의 그림을 비교·검토하여 악기의 구조 및 형태의 변화를

살폈다. 당대의 악기의 제도를 반영한 그림으로 조선시대 악기의 변화를 잘 나타내 준다. 『세종실록·오례』는 중국문헌 『주례도』의 영향을 받아 악기를 도록화 하였고, 해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편찬된 악기도설이 이후에 편찬된 악기도설의 참고문헌이 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의 그림은 『대한예전』에 모사(模寫)되었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악기를 자세히 그린 『악학궤범』의 그림은 『춘관통고』에 영향을 주었다.

요컨대, 조선시대 관찬(官撰) 악기도설(樂器圖說)들의 고찰을 통해 각 문헌들의 특징과 문헌들 간의 관계가 검토되었으며, 더불어 조선시대 악기에 대한 인식과 악기정보를 집성하는 방식이 파악되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개별 도설 및 도설에 나타난 악기들에 대한 많은 부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선조 악기 문헌을 해독하는 관점을 되짚고, 한층 심도 있는 연구의 좋은 계기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국조오례의서례』, 『세종실록』, 『대한예전』, 『증보문현비고』.
- 『악서(6책-12책)』(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9집). 국립국악원, 1982.
- 『악서(13책-19책)』(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10집). 국립국악원, 1982.
- 『영조판 악학궤범』(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6집). 국립국악원, 1988.
- 『진연의궤』(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30집). 국립국악원, 1992.
- 『삼국사기악지·고려사악지·증보문현비고악고』(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7집). 국립국악원, 1988.
- 김종수 역주, 『증보문현비고 악고 上』(한국음악학학술총서 제3집). 국립국악원, 1994.
- \_\_\_\_\_, 『증보문현비고 악고 下』(한국음악학학술총서 제3집). 국립국악원, 1994.
- 이해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한국음악학학술총서 제5집). 국립국악원, 2000.
- \_\_\_\_\_, 『국역 악학궤범』. 민족문화추진회, 1980.
- 국립국악원, 『악학궤범(영인본)』. 국립국악원, 2011.

### 2. 논문

- 김소희, 「『문현통고』 경적고의 서지학적 가치에 관한 재고」. 『서지학보』 제33집, 2009, 89-121쪽.
- 김영운, 「가야금의 유래와 구조」. 『국악원논문집』 제9권, 국립국악원, 1997, 3-29쪽.
- 김종수, 「세종대 아악(雅樂) 정비와 진양(陳暘)의 『악서(樂書)』」. 『온지논총』 15호, 2006, 89-125쪽.
- 로버트 프로바인 저, 정영진 역, 「『악학궤범』 권6의 편찬과정 소고」. 『음악과 민족』 권12호, 1996, 279-285쪽.
- 송방송, 「『악학궤범』의 문헌적 연구: 인용기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권16 호, 1982, 1-65쪽.
- 송지원, 「18세기 조선 음악지식集成의 방식」. 『한국문화』 제57집, 2012, 127-151쪽.
- \_\_\_\_\_, 「음악학 사료로서의 국가전례서 읽기: 『국조오례의』·『국조오례서례』를 중심으로」. 『동양음악』 권44호, 2018, 73-104쪽.

- \_\_\_\_\_, 『정조의 음악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숙희, 「『악학궤범』 소재 악기편성의 종류와 성격」. 『국악원논문집』 권15호, 국립국악원, 2003, 95-136쪽.
- 임미선, 「대한제국기의 음악-대한제국기 궁중음악: 「대한예전」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45집, 2010, 67-105쪽.
- 정구복, 「『문헌비고』의 자료적 성격과 사학사적 의미」. 『진단학보』 제106집, 2008, 167-190쪽.
- 정화순, 「조선전기 문현에서의 국악기 분류법에 대한 검토」. 『온지논총』 권15호, 2006, 359-400쪽.
- \_\_\_\_\_, 「『악학궤범』 「향부악기도설」의 원전에 대한 추고」. 『온지논총』 권16호, 2007, 335-361쪽.
- \_\_\_\_\_, 「한국 방향의 구성 음과 편차의 변천에 관하여」. 『국악원논문집』 제26집, 2012, 325-355쪽.
- 주재근, 「일제강점기 국악기에 관한 인식」. 『한국악기학』 제2호, 2004, 113-152쪽.

### 3.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jsgimage.aks.ac.kr/>).

### 부록1-조선시대 아악기 종류

	세종·오례	국조오례의서례	악학궤범	춘관통고	대한예전	증보문헌비고
1	종	종	.	종	종	.
2	경	경	.	경	경	.
3	종거	.	.	.	.	거·순·송아· 수우
4	경거	.	.	.	.	
5	가종	특종	특종	특종	특종	특종
6	가경	특경	특경	특경	특경	특경
7	편종	편종	편종	편종	편종	편종
8	편경	편경	편경	편경	편경	편경
9	건고	건고	건고	건고	건고	건고
10	삭고	삭고	삭고	삭고	삭고	삭고
11	응고	응고	응고	응고	응고	응고
12	뇌고	뇌고	뇌고	뇌고	뇌고	뇌고
13	영고	영고	영고	영고	영고	영고
14	노고	노고	노고	노고	노고	노고
15	뇌도	뇌도	뇌도	뇌도	뇌도	뇌도
16	영도	영도	영도	영도	영도	영도
17	노도	노도	노도	노도	노도	노도
18	도	도	도	도	도	.
19	토고	토고	.	토고	.	토고
20	절고	절고	절고	절고	절고	절고
21	.	진고	진고	진고	진고	진고
22	축·지	축·지	축·지	축·지	축·지	축·지
23	어·진	어·진	어·진	어·진	어·진	어·진
24	관	관	관	관	관	관
25	약	약	약	약	약	약
26	화	화	화	화	화	화
27	생	생	생	생	생	생
28	우	우	우	우	우	우
29	소	소	소	소	소	소
30	적	적	적	적	적	적
31	부	부	부	부	부	부
32	훈	훈	훈	훈	훈	훈
33	지	지	지	지	지	지

34	슬	슬	슬	슬	슬	슬
35	금	금	금	금	금	금
36	둑	둑	둑	둑	둑	.
37	정	정	정	정	정	.
38	휘	휘	휘	휘	휘	.
39	순	순	순	순	.	순
40	탁	탁	탁	탁	.	탁
41	요	요	요	요	.	요
42	탁	탁	탁	탁	.	탁
43	응	응	응	응	.	응
45	아	아	아	아	.	아
46	상	상	상	상	.	상
47	독	독	독	독	.	독
48	우무	우	적약	우	우약	.
49	간무	간	간	간	간척	.
50	.	조촉	조촉	조촉	조촉	.
51						부(拊)

## 부록2-조선시대 속악기 종류

	세종·오례	국조오례의서례	악학궤범	춘관통고	대한예전	증보문헌비고
1	화	·	·	·	·	·
2	생	·	·	·	·	·
3	우	·	·	·	·	·
4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5	박	박	박	박	박	·
6	교방고	교방고	교방고	교방고	교방고	교방고
7	월금	월금	월금	월금	월금	월금
8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9	당비파	당비파	당비파	당비파	당비파	당비파
10	해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11	대쟁	대쟁	대쟁	대쟁	대쟁	대쟁
12	아쟁	아쟁	아쟁	아쟁	아쟁	아쟁
13	당적	당적	당적	당적	당적	당적
14	당피리	당피리	당피리	당피리	당피리	당피리
15	통소	통소	통소	통소	통소	통소
16	·	태평소	태평소	태평소	태평소	태평소
17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현금
18	향비파	향비파	향비파	향비파	향비파	향비파
19	가야금	가야금	가야금	가야금	가야금	가야금
20	대금	대금 (중금·소금)	대금 (중금·소금)	대금 (중금·소금)	대금 (중금·소금)	대금 (중금·소금)
21	·	·	소관자	·	·	·
22	·	·	초적	·	·	·
23	향피리	향피리	향피리	향피리	향피리	·
24	·	·	·	·	·	향발
25	·	·	·	·	·	동발
26	·	·	·	·	·	알쟁
27	·	·	·	·	·	대고
28	·	·	·	·	·	소고

## 국문초록

조선시대 관찬서(官撰書) 『세종실록·오례』(1451)·『국조오례의서례』(1474)·『악학궤범』(1493)·『춘관통고』(1788)·『대한예전』(1898)·『증보문헌비고』(1770-1908)에 나타난 악기도설(樂器圖說)을 편찬시기 순으로 악기의 종류와 분류, 해설, 도상 등을 비교하여 특징과 각 문헌간의 관계 도출하였다.

첫째, 문헌의 성격에 따른 악기 목록 구성에 차이가 있고, 각 문헌의 편찬시기에 따라 악기 종류의 가감(加減)이 발생되었다. 의례서와 악서의 이전 도설들은 '악기'를 악현에 배치된 '모든 의물(儀物)'로 인식하였던 반면, 유서류 『증보문헌비고』는 '악기'를 '음악을 연주하는 기구'의 개체로 인식한 새로운 구성을 보여준다.

둘째, 『세종실록·오례』의 해설을 기초로 『국조오례의서례』에서 해설이 완성되었고, 『국조오례의서례』의 해설은 『악학궤범』·『춘관통고』·『대한예전』까지 전용(全用)되었다. 다만, 『악학궤범』은 추가적으로 악기 만드는 법 및 연주법에 관한 내용을 새로 집필하였고, 『증보문헌비고』는 『국조오례의서례』에 더불어 『악학궤범』의 내용까지 전용(全用)하고, 그 외에 한국문헌들을 인용해 추가 집필한 것이다. 악기의 해설은 초기 중국문헌 인용문에 의존한 집필에서 후기로 갈수록 실용적인 정보와 한국문헌 인용으로 증보(增補)되는 양상을 보인다.

해설 검토 과정에서는 현재 원문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서각 『대한예전』 사본(寫本)의 착간으로 인한 악기해설 오류를 정정하였고, 『증보문헌비고』가 인용한 『악학궤범』이 임진란(壬辰亂) 후판본(後板本)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세종실록·오례』 및 『국조오례의서례』에는 각기 당대의 악기 제도가 반영된 그림이 나타났다. 『악학궤범』은 독자적으로 도면(圖面) 성격의 그림이 나타났고, 『춘관통고』가 『악학궤범』 그림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예전』은 『국조오례의서례』의 도록(圖錄)을 모사(模寫)하는 과정에서 도설(圖說)의 역기

능이 나타났다.

요컨대, 조선시대 관찬(官撰) 악기도설(樂器圖說)의 고찰을 통해 각 문헌들의 특징과 문헌들 간의 관계가 검토되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개별 도설 및 도설에 나타난 악기들에 대한 많은 부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선 악기 문헌을 해독하는 관점을 되짚는 연구의 좋은 계기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투고일 2018. 12. 20.

심사일 2019. 1. 17.

제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국악기(Korean musical-instruments), 악기도설(an explanatory diagram of musical-instruments), 악기해설(instrument explanatory), 악기그림(instrument diagram), 국악기분류(Classification of Korean musical instruments), 국악문헌 (Literatur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악학궤범 (Akhak kwebǒm)

## Abstracts

### Comparative Research on The Explanatory Diagram of Korean Musical Instruments in Joseon Dynasty

OH, Ji-hae

This paper compares musical instruments lists, instrument types, classifications, commentary, and images of six explanatory diagrams of Korean musical instruments in the Joseon period official books “Sejong Sillok (Annals of King Sejong(1451)”, “Kukcho orye sōrye(Introductory Remarks on National Rituals) (1474)”, “Akhak kwebōm(Canon of Music)(1493)”, “Ch’ungwant’onggo (Comprehensive Study of the Ministry of Rites)(1788)”, “Daehan-yejeon(the national ritual book of the last Dynasty of Joseon)(1898)”, “Ch’ungbo Munhōn Pigo(The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of the Comparative Review of Records and Documents)(1770-1908)in a time-ordered sequence and drew the conclusion of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hips of each document.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musical instrument list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documents and the orchestration at the time of writing documents.

Second, based on the explanation of book “Sejong Sillok Orye”, the commentary on “Kukcho orye sōrye” was completed, and the explanation of book “Kukcho orye sōrye” was used on “Akhak kwebōm” and “Ch’ungwan t’onggo”, “Daehan-yejeon”. Only “Akhak kwebōm” added about how to make and play musical instruments. “Ch’ungbo Munhōn Pigo” adopted to all contents of “Kukcho orye sōrye” and “Akhak kwebōm”, and added commentary by quoting Korean documents.

In reviewing the explanation of the instruments, the commentary error of the instruments due to the mispagination of “Daehan-yejeon” has been corrected and “Akhak kwebōm” quoted by “Ch’ungbo Munhōn Pigo” was found to be version after the Imjin War.

Third, the image reflecting the musical instruments system of each time appeared on “Sejong Sillok Orye” and “Kukcho orye sōrye”. The drawing of “Akhak kwebōm” drew the instrument independently details. “Ch’ungwan t’onggo” refers to “Akhak kwebōm”s drawing and “Daehan-yejeon” has a distorted part in the process of copying “Kukcho orye sōrye”

In short, the relationship and the features of each explanatory diagram of Korean musical-instruments in Joseon Dynasty were examined.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good opportunity to study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ng Korean musical instrument records.